

Sulwhasoo

VOL.79 MAY/JUNE 2017

Sulwhasoo

Sulwhasoo





Water Drop / 이가진 / 세라믹 / 2017

맑고 청명한 푸른 빛깔, 매끈한 곡선과 물방울을 닮은 모양, 백자 위로 흘러내린 유약, 도예가 이가진의 청자다. 모던하게 다시 태어난 비색청자翡色靑瓷은 현대적인 공간 어디에 두어도 어색함이 없을 것 같다. 도예가 이가진은 전통의 현대화에 대한 다양한 고민에서 영감을 얻는다. 그가 전통 청자를 재해석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은 재료의 현대적인 발전과 적용이다. 도자기를 제작하면서 전통 방식에 집착하지 않고, 지금에 맞는 재료를 새롭게 개발하고 다루는 기법을 꾸준히 탐색한다. 대신 청자의 속성을 간직하기 위해 산화철로만 발색을 고집한다. 허나 그의 작품은 전통의 색감이 아닌 서정적이고 감성적인 그만의 색감이다. 도예가 이가진의 청자는 백색도가 높은 흙을 물레로 성형해 몸체를 만든 후, 초벌구이를 거쳐 직접 제조한 청자 유약을 두툼하게 시유施釉하여 탄생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청자는 독특한 물질감이 생생하게 느껴지며 청아하면서도 고귀한 컬러를 가진다. 그저 옛것이 아닌 동시대의 문화로 우리의 삶에서 공감할 수 있는 작업을 해나가는 도예가 이가진. 선조들이 물려준 아름다움에 현대적인 감각을 입힌 그의 작품은 색다른 미감으로 다가온다. 에디터 윤연숙 사진 이종근

Clear and lucid blue, smooth as a waterdrop, lacquer slides along the white porcelain. This is the description of the celadon by Porcelain Master Ga Jin Lee. The modernly recreated blue celadon goes well with any contemporary space. Porcelain Master Ga Jin Lee is inspired by her concept of modernizing tradition. She focused on reinterpreting the traditional celadon for the modern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materials. She is not obsessed with traditional methods, and she is constantly exploring new materials and methods that are appropriate today. However, she stubbornly uses oxidized iron to preserve the properties of celadon. Her work is a reflection of his unique lyrical and sentimental tones. Her celadon is molded with white clay, baked primarily, and covered with a thick layer of her own celadon lacquer. The celadon has unique material properties with elegantly loyal colors. Porcelain Master Ga Jin Lee works with what we share in the contemporary culture. Her modern creations on top of the beauty handed down by ancestors are a testament of his unique aesthetics.

단단한 기본으로 만들어낸 피부 자신감
에센셜 라인

Essential Line



어떠한 외풍에도 흔들림 없이 피부를 보호해줍니다.
단계별로 영양과 생기를 부여하는 에센셜 라인은 얼굴에 본이 다른 아름다움을 꽃피웁니다.

Protects the skin from external factors
The Essential Line nourishes and revitalizes the skin step-by-step
to enhance your beauty beyond your expectations.



Sulwhasoo

MAY/JUNE 2017

진정한 아름다움의 가치를 실현하는 글로벌 홀리스틱 뷰티의 정수, 설화수

설화수는 순행하는 자연의 이치로부터 지혜를 얻고, 자연에서 나고 자란 진귀한 원료로 참된 아름다움을 만들어낸다. 내·외면의 균형 잡힌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설화수. 수천 년 아시아의 지혜가 담긴 전설적인 한방 성분을 현대 피부과학으로 재창조하여 피부 안팎을 케어하는 궁극의 피부 솔루션을 제공하며,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아주는 홀리스틱 뷰티를 선사한다. 3000가지 원료에서 찾아낸 설화수 고유의 원료인 "자음단"과 설화수만의 독보적인 효능을 가능케 한 한국의 우수 원료 고려 인삼 그리고 첨단 피부과학을 통해, 설화수는 한국을 넘어 세계에 홀리스틱 뷰티의 가치를 전파하고 있다. 2017년 현재, 설화수는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 싱가포르, 홍콩,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대만, 베트남, 미국, 캐나다까지 전 세계 11개국에 진출, 아시안 뷰티 크리에이터로 자리 잡고 있다.

Sulwhasoo gains wisdom from the laws of nature and creates true beauty with precious ingredients grown in nature. It presents the balanced beauty of inside and out. The legendary Asian medicinal herbs that distill thousands of years of Asian wisdom are recreated with modern skincare science to provide the ultimate skincare solution, and create Holistic Beauty of harmony and balance. Sulwhasoo's original 'JAUM Balancing Complex', found from about 3,000 ingredients, coupled with Korea's outstanding ginseng that enables Sulwhasoo's unmatched efficacies and advanced skin science, spreads the value of Holistic Beauty throughout the world. As of 2017, Sulwhasoo conducts business in 11 countries, including Korea, China, Singapore, Hong Kong, Thailand, Indonesia, Malaysia, Taiwan, Vietnam, U.S. and Canada, as the Asian beauty creator.

Sulwhasoo

VOL.79 MAY/JUNE 2017



펼 치 다

〈Sulwhasoo〉는 설화수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주)아모레퍼시픽에서 연 6회 발행하는
고품격 VIP 매거진입니다.

- 08
설화지혜
단단한 건강을 드러내는 빛나는 피부
- 12
피부 섬기기
조화와 균형에서 비롯된 완전한 아름다움
- 16
新 장인을 만나다
지든 이기든 모든 과정이 하나의 수행이다
- 22
공간미감
오래된 정수 시설 위에 읊든 생태공원
- 28
건너다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뽐어내다

발행일 : 2017년 5월 1일(통권 제79호)
발행인 : 심상배 편집인 : 이우동
발행처 : (주)아모레퍼시픽 기획 및 제작 · 설화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팀
제품 문의 : 고객상담팀(080-023-5454, 수신자 요금 부담)
편집, 디자인 : 가야 미디어 02)317-4921 편집 : 윤연숙, 민소연 디자인 : 조윤희
사진 : GURU visual 02)747-6118 시스템 출력 : 덕일 인쇄 · (주)태산인쇄 02)853-6574

〈Sulwhasoo〉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Sulwhasoo〉에 게재된 글과 사진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Sulwhasoo〉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Sulwhasoo〉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Sulwhasoo〉는 www.sulwhasoo.com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 리 다

- 36
설화인
이번 생, 그녀가 해야 할 일 오늘도 행복할 것
- 44
어우러지다
집 안에 그림 한 점 마음에 두다
- 50
설화풍경
한국의 미와 자연의 아름다움이 어우러지다
- 54
설화보감
차 한 잔과 그림처럼 어울리는 茶果
- 60
아름다운 기행
달콤한 인생, 달콤한 여행
파리 & 브뤼셀
- 66
설화수를 말하다
매일의 일상에 윤택함이 함께하다
- 72
설화공간
귀한 이를 위한 마음 담은 설화수의 특별한 포장
- 74
설화수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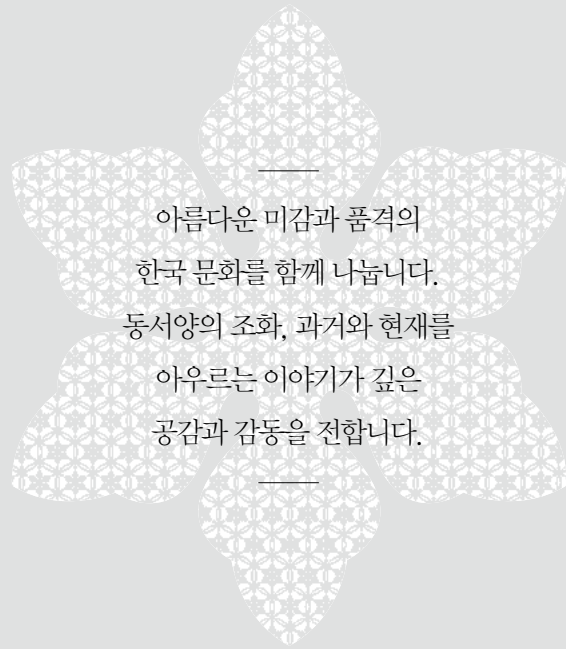


익 히 다

- 78
배움의 기쁨
푸르른 공중 정원이
나만의 공간으로 들어왔다
- 82
한국의 멋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로만 꾸미다
- 84
설화애장
오래되어도, 오래될수록 아름다운 것들
- 86
읽다
청춘, 봄처럼 잔란하게 빛나는 찰나
- 90
집 안 단장
주고받는 사이, 더 가까워져요
- 92
몸 단장
소소한 행복을 찾아서



- 94
문화 즐기기
- 96
프로덕트 맵
- 98
독자 선물



펼
치
다



단단한 건강을 드러내는 빛나는 피부 Radiant skin represents health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이 된다”라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언은 시대를 초월한 통찰력을 보여준다. 맑고 깨끗한 것들을 엄선하여 섭취해 건강한 내면을 만든다면 우리는 말 그대로 맑고 깨끗해진다. 피부는 신체의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는 창구이므로, 아름다운 피부를 위해 오래전부터 전해지는 건강한 지혜를 살펴본다.

글 민소연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문지윤(뷰로 드 끌로디아) 어시스턴트 황남주, 장세희

문득 단군신화를 떠올려본다. 곰 한 마리가 쑥과 마늘을 먹으며 21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는다는 어려운 숙제를 풀어 아름다운 여인이 되었다는 부분은 여러 역사적 궁금증과 추측을 낳는다. 그중 주목할 만한 점은 ‘쑥과 마늘’에 대한 언급이다. 왜 하필 쑥과 마늘일까? 이들은 미백 효능을 가진 오랜 식재료였다. 어쩌면 그 탁월한 미용적 효과 때문에 환웅이 반할 정도로 고운 여인이 될 수 있었다는 의미가 상징된 것일지 모르겠다. 식이요법으로 아름다움을 얻으려는 시도는 오랫동안 동서양을 떠나 끊이지 않았고, 그 방법도 다양했다.

잡티 없이 환하고 빛나는 피부를 위해서는 좋은 화장품이 필요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자기 관리 역시 수반되어야 한다. 충분한 수면과 적절한 운동, 균형잡힌 영양소를 취하여 신체의 기능을 최상으로 유지할 때 화장품의 효과도 함께 상승한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역시 음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선인들도 잘 알고 있었다. 조선시대 궁중에서는 군주나 왕후들의 피부 미용을 위한

Think of the myth of Dangun. The part where a bear endured 21 days inside a cave by eating only mugwort and garlic and transformed into a beautiful woman led to various historical questions and hypotheses. What is important is the use of ‘mugwort and garlic.’ Why does it have to be mugwort and garlic? These herbs have been used for whitening for a long time. Their exceptional skincare benefits may have made them symbols of beauty that even mesmerized Hwan Woong. Attempts to acquire beauty through diet have continued around the world and in various ways.

You need quality cosmetic products to have flawlessly bright and radiant skin, but you also need self-discipline. Cosmetic products enhance the condition of your body with enough sleep, healthy exercise, and balanced nutrition. The most important factor, however, is the food you eat. Our ancestors were also aware of this. During the Joseon Dynasty, there were many special medicinal skincare therapies for members of the royalty. Overeating and lack



클리어 컬러의 작은 이중 컵은 JA by 서울번드, 연꽃빛 컬러의 미니 저그와 골드 테두리의 소스 저그는 양유원 작가 by 체어스온더힐
연 블루의 컵과 그린 컵, 칵테일 잔은 모두 이도아틀리에, 커팅된 면이 포인트인 유리잔은 퍼슨

각별한 약선藥膳 요법들이 존재했다. 왕족들의 과도한 음식물 섭취와 운동 부족은 각종 성인병과 피부 질환으로 넘어갔기 때문인데, 음식 요법은 피부 관리의 방법과 이어진다. <동의보감>에서는 “음식 맛을 옅게 하면 사람으로 하여금 정신이 상쾌하고 기가 맑아지게 한다”라고 하여 담백한 음식이 사람의 정신과 기운을 맑게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특히 얼굴에서 열이 나는 원인을 ‘고량적열 膏梁積熱’, 즉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과하게 섭취해 열기가 쌓인 것으로 보고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피부에 좋은 약재나 식재료도 여럿 전해진다. 백합과에 속하는 천문동은 기운을 보충하고 저항력을 증강시켜 피부가 팽팽해지고 윤기가 돌아 ‘젊어지는 약초’로 불렸다. 복분자와 도화, 등나무 덩굴 등도 얼굴의 빛깔을 좋게 해주어 아름다움을 위해 오래 복용하기를 권했다. 한편 등과인은 얼굴에 광택을 주고 검은 반점과 주근깨를 없애주어 환으로 만들어 복용했다.

조선 최고의 미녀라 꼽히는 황진이는 투명한 피부를 위해 인삼을 애용했다. 피부 세포에 활력을 주는 사포닌이 풍부한 인삼의 잎을 말려 사시사철 차로 달여 마셨다고 전한다. 한편 중국의 양귀비는 콜라겐 성분이 풍부한 닭발개로 탄력 있는 피부를 지켰으며, 부황과 경락 마사지로 신체에 쌓인 좋지 않은 기운을 풀었다.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는 활력과 피부를 위해 굴을 먹었다. 영양 만점인 굴은 멜라닌 색소를 분해해 미백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

이처럼 ‘이너뷰티’는 비단 최근의 트렌드가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많은 이들이 알고 실천해온 삶의 슬기였다. 그 안에는 자신을 살피고 가꾸는 부단한 노력, 사랑이 살아 숨 쉰다. S

of exercise led to different types of diseases and skin troubles, thus diet therapy is related to skincare. <Donguibogam> mentioned that less seasoned food clears the mind and provides energy. In particular, it was thought that the cause of excess heat on the face was because of ‘eating too many high-calorie foods’ and appropriate actions were taken.

There are also several herbs or food ingredients that are great for skincare. Asparagus cochinchinensis from Liliaceae was known as the ‘youth herb,’ as it replenishes energy and resistance to ensure the firmness and the radiance of the skin. It was also highly recommended to take Bokbunja, peach blossoms, and wisteria vines to achieve beautiful complexion. Benincasa hispida seeds were likewise taken as pellets because they brighten the face and correct flaws such as dark spots and freckles. Hwang Jini, known as the greatest beauty of Joseon, enjoyed ginseng and achieved skin clarity. She brewed ginseng leaves that were filled with saponin to energize skin cells, and enjoyed it as tea. Yang Guifei of China protected her resilient skin with the collagen in chicken wings, and dealt with bad energy through cupping and meridian massage. Cleopatra enjoyed oysters because it provided her energy and skincare benefits. The nourishing oyster decomposes melanin and acts as an effective whitening agent. ‘Inner beauty’ is not a contemporary idea, but it is part of the wisdom of life that was pursued by many people from many ages ago. It is a reflection of their unwavering efforts and dedication to take care of and redefine their looks.



동서양의 감성이 동시에 느껴지는 세라믹 오브제는 모두 임기원 작가x스틸라이프 by 챔터원 진 베이지 컬러웁칠 트레이는 오유미 작가, 실버 액세서리와 욕반지, 진주 목걸이는 모두 Büro

조화와 균형에서 비롯된 완전한 아름다움 Complete beauty from balance and harmony

설화수의 브랜드 철학 '조화와 균형'이 오롯이 담긴 윤조에센스. 그 탁월한 효능을 가득 담은 새로운 걸작 윤조마스크. 이들의 핵심 원료 자음단™이 피부 노화의 근본을 다스려 윤의 절정을 선사한다.

에디터 윤연숙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문지윤(뷰로 드 플로디아) 어시스턴트 황남주, 장세희

건강한 피부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피부 윤기는 전 세계 모든 여성의 로망일 것이다. 설화수는 이러한 여성의 로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고전 한방서에서 찾은 3000가지 귀한 약용식물 가운데 5가지 원료를 엄선하여 복방 처방한 자음단™을 탄생시켰다. 수만 번의 실험 끝에 음을 보충해주는 5가지 최적의 원료인 작약, 연, 옥죽, 백합, 지황을 찾아냈고, 이를 10분 단위로 달여보며 얻어낸 18시간이라는 최적의 달임 시간이 적용된 자음단™은 남다른 정성과 노력이 발현된 설화수 50년 연구의 결정체이다. 더불어 원료가 가진 효능을 최대한 추출하는 최신 가공기술 프렉스트렉트 프로세스™(PREXtract Process) 공법은 자음단™의 유효 성분을 한층 강화시켰다. 기존 자음단 대비 더욱 농축된 효과를 통해 영양, 생기, 투명도, 탄력, 자생력 등 5가지 총체적인 피부 균형을 바로잡아 준다. 다양한 피부 문제의 시작은 탄력, 영양 등 여러 가지 균형이 흐트러지는 데 기인한다. 자음단™은 이상적인 피부 균형을 되찾아주어 촉촉하고 매끄러운 윤기 피부를 경험하게 한다.

It would be every woman's desire to have healthy skin with natural radiance coming from deep within. To make this dream come true for women everywhere, Sulwhasoo has selected five ingredients from 3,000 precious medicinal herbs that were mentioned in traditional Korean Medicine, and then formulated them in an optimum ratio to create the JAUM Balancing Complex™. After tens of thousands of tests, Sulwhasoo discovered that peony, lotus, solomon's seal, white lily, and rehmannia, the five optimum ingredients, replenish the Yin energy. They were tested every 10 minutes during brewing, thus discovering that 18 hours is the most ideal time for brewing. JAUM Balancing Complex™ is the essence of Sulwhasoo's 50 years of research, and is based on unmatched devotion and effort. Moreover, the PREXtract Process™, the latest processing technology to extract the efficacies of the ingredients as much as possible, has further enhanced the active substances of the JAUM Balancing Complex™. By concentrating the substances by as much as 180% compared to the previous JAUM Balancing Complex™, they restore the skin's balance in five ways: nourishment, vitality, clarity, resilience, and regeneration. Various skin problems begin with the agitation of balance related to resilience and nourishment. The JAUM Balancing Complex™ restores the ideal skin balance for you to experience moisturization, smoothness, and radiance.



구리 적동, 단동 소재에 법랑과
칠보를 입힌 접시들은 모두
권중모x김윤진 작가 by 함-haam



윤조에센스





20년 동안 '조화와 균형'이라는 설화수의 철학을 전하며, 흐트러진 피부 균형을 바로잡아 윤기를 선사하는 첫 단계 에센스 60ml / 90ml

윤조마스크

자음단™ 성분을 미세망 코튼 시트에 가득 담아, 피부 진정과 최적의 피부 결을 선사하는 집중 밸런싱 케어 마스크. 일주일에 1~2회 아침 또는 저녁 세안 후 첫 단계에 스페셜 케어로 사용한다. 5매.

1997년 론칭과 함께 20년째 부동의 1위 에센스로 사랑받고 있는 윤조에센스. 설화수의 오랜 스테디셀러인 윤조에센스는 세안 후 첫 단계에 바르는 세계 최초의 한방 부스팅 에센스로, 출시된 이후 새로운 스킨케어 카테고리를 개척한 것은 물론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여성들의 뷰티 루틴을 바꾸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간 네 번의 진화를 거친 자음단™의 효능으로 피부 균형을 바로잡아, 피부의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하므로 건강한 피부에서만 볼 수 있는 생명력 넘치는 윤기를 직접 확인하게 해준다. 새롭게 출시된 윤조마스크는 자연에서 얻은 어린 목화솜으로 만들어진 미세망 코튼 시트가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며 윤조에센스의 탁월한 효과를 극대화하여 느끼도록 해준다. 외부 자극으로 예민해지고 거칠어진 피부에 적극적인 케어가 필요할 때, 특별한 날을 앞두었을 때, 주기적으로 스페셜 케어를 하고 싶을 때 사용하면 빠른 시간에 촉촉하고 매끄러운 피부를 만날 수 있다. 특히 윤조에센스와 함께 사용하면 시너지 효과를 이뤄 피부를 보습으로 꽉 찬, 더할 나위 없는 윤의 절정으로 인도한다. S

First Care Activating Serum EX has been the No. 1 serum for 20 consecutive years since its launch in 1997. As a Sulwhasoo's steady-seller product, First Care Activating Serum EX is the world's first Korean herbal medicinal boosting serum that can be applied after cleansing. Since its release, it has explored a new skincare category and changed the beauty routine of women in Korea and around the world. With the efficacies of the JAUM Balancing Complex™ that has evolved four times, it restores the skin's balance and fortifies the strength of the skin to achieve radiant, healthy that is full of life. The new First Care Activating Mask gently wraps the skin with a micro net radiance sheet to maximize the exceptional benefits of the First Care Activating Serum EX. Use it when you need instant efficacies for skin that has become sensitive and rough due to external aggressors, when you have a special occasion to attend to, or when you require regular special care, and to experience thoroughly moisturized, smoother skin. Use it with First Care Activating Serum EX to fill your skin with moisture, and unravel your skin's ultimate radiance with the help of different synergies.

<p>윤조마스크 사용법 Volume Brightening Massage</p>				
	<p>Step 1 마스크를 조심스럽게 펼친 후, 겹면 망이 없는 부드러운 안쪽 시트 부분을 얼굴로 향하게 한다. Carefully unfold the mask and turn to the soft, inner side on the opposite of the outer mesh.</p>	<p>Step 2 마스크의 광대 부분을 손가락으로 잡고 눈, 코, 입 부분의 위치를 맞춘 후 얼굴 전체에 맞게 붙인다. Hold the cheekbone part of the mask with your fingers, and align it with your eyes, nose, and mouth.</p>	<p>Step 3 겹면 망을 땀 후, 마스크가 고르게 밀착되도록 코 안쪽부터 얼굴 바깥쪽으로 지그시 눌러주며 시트를 밀착시킨다. Remove the outer mesh and gently press from the nose to the contours for even adherence of the mask.</p>	<p>Step 4 약 10~20분 후, 마스크를 떼어내고 피부에 남은 미용액을 두드려 신뜻하게 흡수시킨다. Remove the mask after 10-20 minutes, and pat the remaining essence to ensure penetration.</p>



지든 이기든 모든 과정이 하나의 수행이다

Lee ka Jin

도 예 가 이 가 진

파스텔 톤의 진전하면서 화사한 색감을 발산하는 청자. 교과서 속 고려청자에 익숙한 이들에게는 다소 파격적으로 다가오는 이 청자는 어떤 탄생 과정을 거쳐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일까? 천년의 세월을 건너 21세기 젊은 작가의 손에서 빛어지는 청자의 아름다움을 들여다본다.

글과 진행 최태원 사진 전재호

표지에 실린 작품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대학원 재학 시절인 2010년부터 시작한 <물방울(Water Drop)> 시리즈예요. 보시다시피 형태가 굉장히 특이하거나 기발한 발상을 드러낸 모습은 아닙니다만, 유약을 최대치로 올렸기 때문에 색깔과 질감에서 시각적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자고로 도자기는 음식물을 담아두기 위해 기능적으로 유약을 입혀왔는데, 저는 유약을 필요 이상으로 두껍게 올림으로써 유약이 극대화됐을 때의 시각적 효과를 높인 겁니다.

유약의 기능성을 버린 대신 유니크한 미학적 성격을 부여했다는 뜻이군요. 다른 도자와 달리 주둥이도 작네요?

꽃 한 송이 꽃을 정도로 작죠. 그릇이 아닌 오브제의 성격을 가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음식이 담기는 내부 면적을 크게 만든 용기와 달리 외부 면적을 최대치로 노출시키려는 의도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렇게 노출된 길면에 유약을 두껍게 코팅해, 유약 그 자체의 미학적성을 극대화했습니다.

Please tell us about the artwork on the cover. This is the <Water Drop> series that I started creating in 2010 when I was still in college. As you can see, it is not very unique in shape or innovative in idea, but you will see a visual difference in color and texture after I increased the amount of lacquer to the maximum quantity. Porcelain has been lacquered for functional purposes such as storing food, but I added the visual effect of full lacquer by adding a layer of lacquer that is thicker than what is generally needed.

It means that you added a unique aesthetic character to the lacquer other than its function. The opening is also small, unlike other porcelain, right? As small as you can barely put a flower in it. It is an object, not a vessel, and I wanted to maximize the exposure of the exterior area, unlike the containers that maximized the interior area so that it could store as much food as pos-

유약을 두껍게 올린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고려청자는 기본적으로 흙의 철분과 유약의 철분이 만나서 중첩되어 비치는 독특한 색감이 다시 흙에 비치는 겁니다. 한마디로 레이어링이 되어 나오는 그 느낌이 세계적인 고려청자만의 비취색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흙색이 비쳐보이지 않을 정도로 유약을 두껍게 올려서, 유약 층 자체가 깊은 물처럼 레이어링이 되게 합니다. 그렇게 나오는 빛깔을 기술적으로 안정화시켜 구현하는 작업이 제 청자를 특별하게 만드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같은 <물방울> 시리즈인데도, 작품마다 색이 미세하게 다른 이유가 궁금합니다.

비유하자면 얇은 물과 깊은 물이라고 할까요. 기본적으로 발색에 차이가 있도록 유약의 조성을 달리하기도 하고, 동일한 유약을 사용하더라도 유약을 올리는 두께의 차이, 굽는 온도, 방법(산소량)에 따라 색과 질감이 달라집니다.

<물방울> 시리즈는 청자의 화려함보다는 단순미가 돋보입니다. 청자 특유의 상감기법 등을 꺼리는 이유라도 있나요?

제가 깔끔한 형태를 선호하긴 하지만 단순히 취향 때문은 아닙니다. 상감기법 같은 청자의 화려한 장식미는 흙의 색이 보이는 청자에 적용하기 적합한 기법인데, 제 <물방울> 시리즈는 두껍게 바른 유약이 빛어내는 빛깔과 깊이감 자체가 표면의 표현이자, 일종의 장식이라서 장식미를 위한 다른 장치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유약의 존재감을 강조하고 싶었으니까요. 마치 유약 한 덩어리가 똑 하고 땅에 떨어져 있는 느낌을 주고 싶었습니다.

sible. The aesthetics of lacquer has been maximized by coating the exposed surface with a thick layer of lacquer.

Why did you add a thick layer of lacquer? Goryeo Celadon is basically the unique colors of iron on the clay and the iron in the lacquer that is overlapped and reflected on the surface. Thus, layering creates a blue shade that is associated with the world-famous Goryeo Celadon. However, I added a thick layer of lacquer so the color of the clay would not penetrate the surface. The lacquer itself is layered as deep water. My celadon is special because the process technically stabilizes the colors.

I wonder why each piece has a slightly different color when they are all from the <Water Drop> series. It is the difference between shallow water and deep water. Basically, I changed the composition of the lacquer to alter the appearance of the color, and the color and texture also vary according to the thickness of the lacquer, baking temperature, and method (amount of oxygen) even when the same amount of lacquer is used.

Simplicity would be the beauty of your <Water Drop> series, not the glamour of celadon. Is there a reason you are reluctant to use the unique inlay technique for the celadon? I prefer shapes, but it is not just because of my taste. The glamorous decoration for the celadon with inlay is suitable for the celadon because it reveals the color of clay. My <Water Drop> series creates the surface and the decoration with the colors and the depth of thick layers of lacquer, so I thought it would not need any other tools. I wanted to emphasize the lacquer itself. I wanted to create the feel of a drop of lacquer on the ground.

That explains why you gave it such title. Most porcelain artists say that porcelain art is labor-intensive, don't they? It is not just physically exhausting, but it is also mentally agonizing. When they



과도하게 유약을 사용해 유약 자체의 미학성을 극대화한 <물방울> 시리즈와 유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지만 실용성을 가진 <정물> 시리즈



도자의 특성을 극복하는 과정을 거치며 숙련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가진 작가.
그의 손에선 오늘도 어김없이 매력적인 청자가 탄생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목이 설명되네요. 그런데 흔히 도예가들은 도예를 강도 높은 노동집약적 예술이라고 하지요?

육체적 과부하도 있지만 정신적 고통이 큼니다. 누구나 가마 작업을 처음 해보면 의도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릇이 작아지기도 하고 주저앉는가 하면 원하던 색이 아닐 때도 있으니까요. 저 역시 그랬지만, 그런 도전의 여지가 매력적이었나봅니다. 아직 수련의 과정이 많이 남아 있기에 여전히 도자의 특성을 극복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특히 수련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재료의 특성을 익히면서 또 때론 제가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면서 품을 들인 만큼, 내 몸에 익숙해지는 정직한 과정을 좋아합니다.

<물방울> 시리즈 말고 어떤 유형의 작품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유약을 전혀 바르지 않은 찻잔과 그릇 등 기물을 대상화하여 간결하게 제작하는 <정물> 시리즈도 있어요. 유약을 바르지 않았지만 차돌처럼 보이는 건 정제된 흙을 쓰고 표면을 잘 연마하여 불을 강하게 때서 그래요. 표면이 살짝 익어서 코팅 면이 생기면 유약만큼은 아니지만 사용 가능한 그릇이 됩니다. 하나의 시리즈는 과도하게 유약을 쓰고, 하나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셈인데 제가 너무 극단적인가요?

미래가 확정되지 않은 젊은 작가로서 세간의 주목이 부담되진 않지요?

아마 제가 시선을 받는 건 '청자'라는 작업 대상 때문일 겁니다. 그런 점에서 너무 구체적이고 어려운 기술의 주제를 선택했다는 부담감이 없진 않아요. 너무 큰 주제를 건드려서, 그 역사성이나 무게감에 짓눌리기도 하고 일종의 책임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앞으로 극복하기 벽찬 한계도 있을 것이고 긴 숙련의 시간을 통과해야겠지만, 그 시간 속에서 주어진 시선을 받아들이어야 하겠죠.

끝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당장은 5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공예 아트 비엔날레 '헤벨라시옹(Revelations)'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작품의 성격을 달리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도자 벽화' 작업을 하면서, 그동안 너무 전 시대에 알릴 수 있는 작품만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벽화가 됐든 입상이 됐든 형식의 변주와 확장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S

try kiln work for the first time, they realize it will not come out as intended. The vessels can shrink, collapse, or come out with a color that you did not anticipate. I have experienced all of these, but the challenge was appealing to me. I still have many training programs left, and I am discovering the general properties of porcelain. I particularly love the honest process of getting used to it during training, studying, and learning the properties of the materials I use from time to time.

I wonder what types of artworks you are creating besides the <Water Drop> series. I have the simple <Still-life> series with tea cups and dishes that have no lacquer at all. I didn't apply lacquer, but I used refined clay and polished the surface for firing in high heat so it would look smooth on the surface. When the surface is slightly baked to form a coat, it becomes a usable vessel. I used excess lacquer for one series, and no lacquer at all for another. Am I too polarized?

You are a young artist with many different paths ahead of you. Isn't the attention overwhelming? I am getting the attention probably because I work with 'celadon.' In that respect, I am overwhelmed for having chosen a medium that is too specific and labor-intensive. It is so enormous, and I am overwhelmed by its history and importance. I feel a sense of responsibility for creating it. There would be limitations that are difficult to overcome, and I would need to endure lengthy periods of training, but I also feel that I should embrace the attention that I am getting today.

Please tell us something about your future plans.

For now, I am planning to participate in 'Revelations,' the craft art biennale held in Paris, France, in May. In the future, I would like to change the character of my work. While working on 'porcelain murals' recently, I thought all of my artworks were too contemporary. I am considering adding variations and expansion of form; they could be murals or sculptu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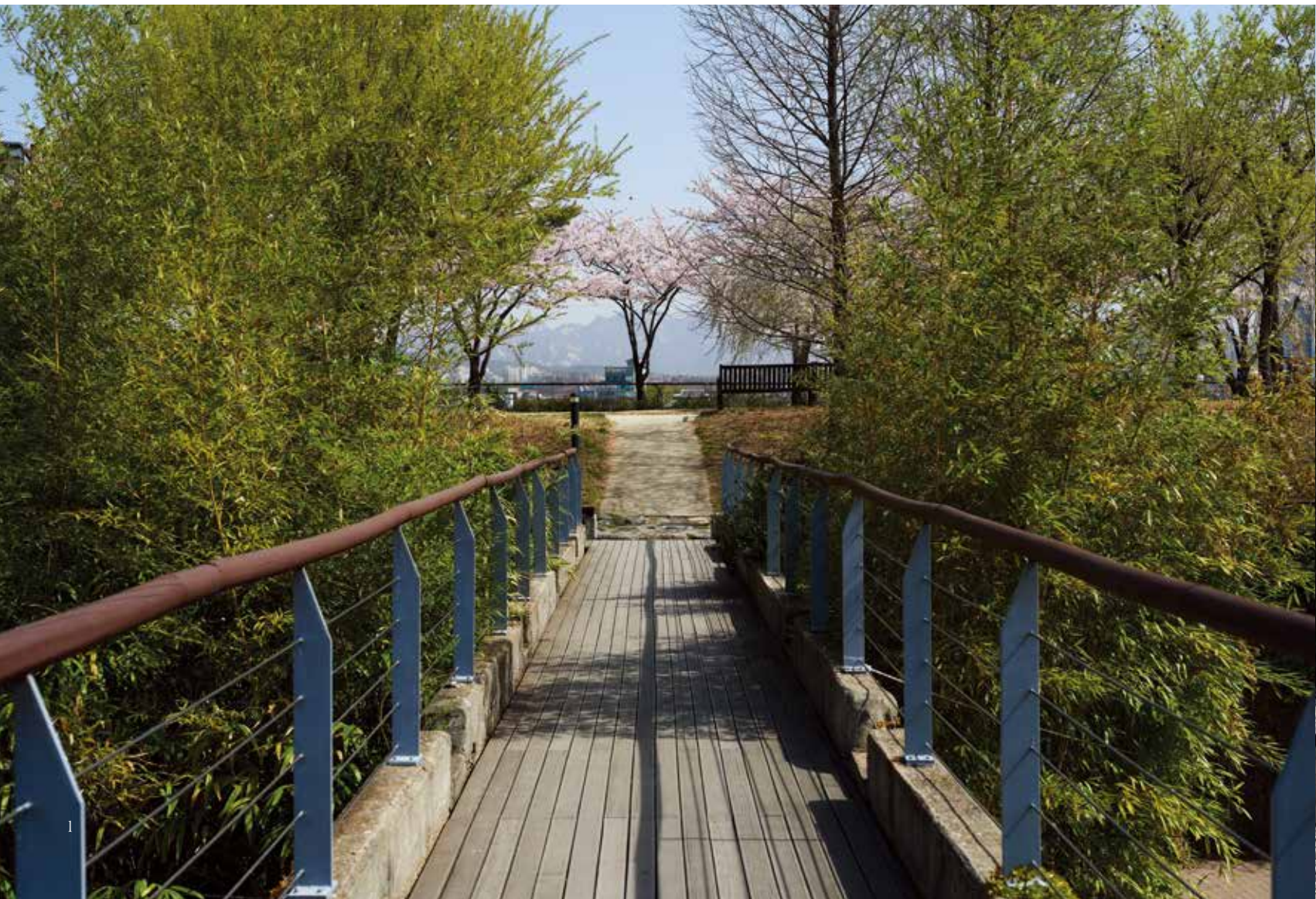
오래된 정수 시설 위에 움튼 생태공원

Seonyudo Park

선유도 공원

선유도공원을 거닐다 보면 시간의 무게가 느껴진다. 자연과 가깝기에 피부로 더욱 외닿는 계절의 변화가 오랜 시간이 흐른 정수 시설들이 주는 묘한 공간감 위를 세월처럼 흐른다.

에디터 민소연 사진 이종근, 오희원 도움 주신 곳 선유도공원





‘신선이 노닐던 섬’이라 하여 그 이름을 가지게 된 선유도는 한강의 고즈넉한 작은 섬으로, 영등포구 양화동 양화대교와 연결되어 있다. 선유도공원은 이곳에 있던 한강정수장을 2002년부터 공원으로 재정비하여 시민들에게 열렸다. 건축가 조성룡과 조경가 정영선의 작품으로 서울특별시건축상, 김수근문화상, 한국건축가협회상 등을 수상했고 한국 최고의 현대건축 3위에 올랐다. 건축가 조성룡은 선유도공원 설계 의도를 시간의 흔적과 건축, 그리고 자연이 함께 녹아 있는 장소로 만들 고자 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래서 건축과 조경 작업의 경계가 드러나지 않게, 그리고 기존에 사 용하던 시설을 최대한 살렸다.

크고 작은 한강정수장의 기존 시설 중 몇몇 주요 건물과 구조물을 선별하고 리사이클링해서 다양 한 식생 환경에서 자라나는 200여 종의 자생식물들을 관찰할 수 있는 수질정화원, 녹색기둥의 정 원, 수생식물원, 시간의 정원 등 주제별 정원과 녹지 공간, 환경물놀이터, 환경놀이마당, 원형소극 장 등 놀이와 문화의 공간, 한강전시관, 환경이뜰리에 등 정보·교육·전시 공간, 카페테리아 등 편의시설을 조성했다.

선유도공원을 찾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오랜 세월이 묻어 있는 콘크리트 기둥 사이를 거닐며, 이곳 이 한때 정수장의 기능을 했음을 기억하거나 추억할 수 있다. 그때까지 미처 몰랐던 사실이라 하더 라도 말이다.

1, 2 약품 침전지를 재활용해 다양한 식물의 세계를 꾸민 '시간의 정원'.
3 선유교는 양화한강공원과 선유도까지의 길을 잇는 도보교로, 여의도 곳곳을 조망할 수 있다.

‘Seonyudo Island,’ so named because it was known as an ‘island where the immortal used to play,’ is a cozy island in the Han River and is connected to the Yanghwa Bridge in Yanghwa-dong, Yeongdeungpo-gu. Seonyudo Park was opened to the public in 2002 after the shut-down of the Han River Water Purification Plant. The works of Architect Sungryong Cho and Landscape Designer Youngsun Jung have won the Architectural Award of Seoul, the Soo Geun Kim Cultural Award, and the Korea Institute of Architects Award, and they were also named as the 3rd best contemporary architecture of Korea. Architect Sungryong Cho explained that he wanted to create a unique location that highlighted time, architecture, and nature when he designed Seonyudo Park. Therefore, he preserved the preexisting facilities and blurred the boundaries between architecture and landscaping as much as possible. Among the previous facilities of the Seonyu Water Purification Plant, he examined several major buildings and structures, and recycled them into a water purifying garden with about 200 native plants, a garden of green columns, an aquatic plant garden, and a time garden. Other facilities include entertainment and cultural spaces, such as the greenery, an environmental water playground, an environmental square, and a small amphitheater, while there are also information/education/



선유도 공원
가는 길

선유도공원은 마포구 합정동과 영등포구 당산동을 잇는 양화대교의 중간에 있다. 합정역이나 당산역에서 내려 시내버스를 이용하거나 걸어서 가면 된다. 또 양화 한강공원에서 선유교를 이용해도 된다. 승용차를 타고 갈 경우 양화 한강공원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위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343
문의 선유도안내센터 02-3780-0590~5
선유도공원관리사무소 02-2631-9368
이용시간 오전 6시~자정(연중무휴)



1 선유도공원은 사진가들의 출사 명소이기도 하다. 봄이 되면 벚꽃이나 복숭아꽃이 만발해 장관을 이룬다.
2 밤 12시까지 개장하는 선유도공원은 해가 지면 또 다른 얼굴을 한다. 섬세한 조명이 조경과 어우러져 독특한 분위기를 만든다.

근대 산업시설 유적지를 이용하여 공원을 조성한 예는 독일 루르 지방의 거대한 제련소를 공원으로 만든 뒤스부르크-노르트(Landschaft Park)와 미국 시애틀의 가스워크스 공원(Gasworks Park)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선유도공원이 최초의 리사이클 생태공원이다. 축구장 15개를 합쳐놓은 방대한 면적이지만 막상 산책을 하면 그리 넓게 느껴지지 않는다. 각각의 공간이 짜임새 있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선유도공원에는 높고 낮은 여러 길이 있고 그 길을 따라 가다 보면 서로 다른 주제의 공간에 이르게 된다. 이 길들 사이엔 공원의 테마이기도 한 '물의 정원'이 있다. 세 개의 저장 탱크에서 나온 물은 온실과 수질정화원으로 흐른다. 수질정화원은 수생식물이 자라는 계단식 수조를 거쳐, 물이 정화되는 과정을 관찰할 수 있는 곳. 또 수질정화원에서 흘러 나온 물은 환경물놀이터에서 머물다 갈대가 자라는 수로를 지나고, 수생식물원과 시간의 정원으로 향한다.

수생식물원에선 다양한 수생식물을 만나볼 수 있다. 시간의 정원은 정수장의 구조물이 가장 온전하게 보존돼 재활용한 공간으로, 낡은 콘크리트 위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식물들의 생동감이 묘한 감동을 준다. 우리가 새롭다고 느끼는 모든 것이 슬한 경험과 시간의 바탕 위에 쌓여 역사가 되고 있음을 깨닫게 한다. S

exhibition spaces, such as the Han River Exhibit, a visitor center, an environmental atelier, and amenities, such as a cafeteria and rest rooms. Anyone who visits the Seonyudo Park would walk among the old concrete columns in recognition that this site used to be a water purifying plant, even if they did not know about it.

Parks that use modern industrial facilities include the Landschaft Park of Duisburg-Nord in Ruhr, Germany, which used to be a gigantic refinery, and Gasworks Park in Seattle, Washington. In Korea, Seonyudo Park is the first recycled eco park. It is a vast place that is as wide as 15 soccer fields, but it does not seem very big when you walk around it because each space is well-organized. Seonyudo Park has many high and low paths, and you will arrive at the spaces under different themes as you follow the paths. Among these paths is the 'Water Garden,' the major theme of the park. The water from three water tanks flows to the greenhouse and the water purifying garden. The water purifying garden is where you can observe how the water is purified along the stepped water tank where aquatic plants grow. Also, the water from this garden passes the waterway with reeds in the environmental water playground to the aquatic plant garden and the time garden. You can see various aquatic plants at the aquatic plant garden. The time garden preserves and recycles most of the structures of the water purifying plant. And the liveliness of the plants growing on the old concrete are impressive. You can realize that everything you see now is developing history on top of numerous experiences and time.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뿜어내다 Splashing the irresistible charm

클래식과 트렌디가 교차하며 세계 각국의 다양한 브랜드가 모인 도시 홍콩. 이곳에서 설화수는 기품 있는 아름다움을 전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생동감 넘치는 도시의 풍경 속에서 마주한 설화수의 매력들.

에디터 윤연숙 사진 서티스톡



글로벌 트렌드가 오가는 공간에서 찾은 설화수의 향기

빨간 택시와 2층 버스, 고층 빌딩과 화려한 네온사인, 밤낮없이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여행자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한다. 간판이 열기설기 이어진 어수선한 거리의 시끌벅적한 소리도 음악처럼 들린다. 트램을 타고 가파른 언덕을 올라 만나는 빅토리아피크(Victoria Peak)의 야경은 어떠한가. 매일 저녁 8시에 펼쳐지는 음악&레이저쇼 심포니 오브 라이트(Symphony of Lights)는 그야말로 환상적이다. 홍콩을 이야기할 때 야경만큼이나 금방 떠오르는 것은 단연 쇼핑이다. 전 세계의 다양한 브랜드가 모여 저마다 매력적인 쇼윈도를 뽐내는 곳, 예나 지금이나 홍콩은 쇼핑의 메카이다. 특히 홍콩 최대 변화가 중 하나인 침사추이는 유행을 선도하는 럭셔리 브랜드들이 즐비한 지역이다. 이곳에 위치한 하버시티는 총 네 개의 존(Zone)이 이어진 거대한 쇼핑 타운으로, 홍콩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홍콩에서 현지인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쇼핑 공간인 하버시티 게이트웨이에 설화수는 지난해 3월, 홍콩에서 열 번째 매장을 오픈했다. 하버시티 게이트웨이 매장은 오픈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지만, 하루에도 수많은 고객이 다녀가는 홍콩의 대표 매장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The scent of Sulwhasoo found in a city of global trends

Red taxis, two-story buses, skyscrapers, colorful neon signs, and busy people on the road day and night have made travelers' hearts flutter. Even the crowded noise in the busy streets that have countless signs all over is music to the ears. What about the night view of Victoria Peak that you see on a steep hill after riding the tram? The Symphony of Lights, featuring a music and laser show at 8 PM every night, is just fantastic. When you talk about Hong Kong, shopping comes to mind as instantly as the night view. Hong Kong has always been the Mecca of shopping, especially with the attractive window displays of various brands from all over the world. Tsim Sha Tsui, one of the most interesting areas in Hong Kong, is filled with luxury, trend-setting brands. Harbor City is a massive shopping center with four zones, and is the largest in scale in Hong Kong. Sulwhasoo opened its 10th store in Hong Kong in March last year at Harbor City Gateway, attracting many local and foreign shoppers. After only a little over a year since it was established, it has become one of the major stores in Hong Kong that attracts hundreds of customers daily.

화려하고 역동적인 쇼핑 타운.
뷰가 아름다운 해변 산책로 등 쇼핑과
힐링,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켜주는
도시 홍콩.





- 1 레인크로프트 IFC 센트럴
Lane Crawford IFC Central
 - 2 하비 니콜스 랜드마크 센트럴
Harvey Nichols The Landmark Central
 - 3 하비 니콜스 파시픽 플레이스 애드미럴티
Harvey Nichols Pacific Place Admiralty
 - 4 타임스퀘어 코즈웨이베이
Times Square Causeway Bay
 - 5 소고 코즈웨이베이
Sogo Causeway Bay
 - 6 하버시티 게이트웨이 침사추이
Harbour City Gateway Arcade Tsim Sha Tsui
 - 7 실버코드 칸톤로드 침사추이
Silvercord Canton Road Tsim Sha Tsui
 - 8 레인크로프트 칸톤로드 침사추이
Lane Crawford Canton Road Tsim Sha Tsui
 - 9 소고 침사추이
Sogo Tsim Sha Tsui
 - 10 뷰티아비뉴 랭엄플레이스 몽콕
Beauty Avenue Langham Place
 - 11 팔백만 마카오
New Yachan Macao
- 홍콩 내 설화수 매장 입점 지역



이토록 매력적인 도시, 이토록 매력적인 설화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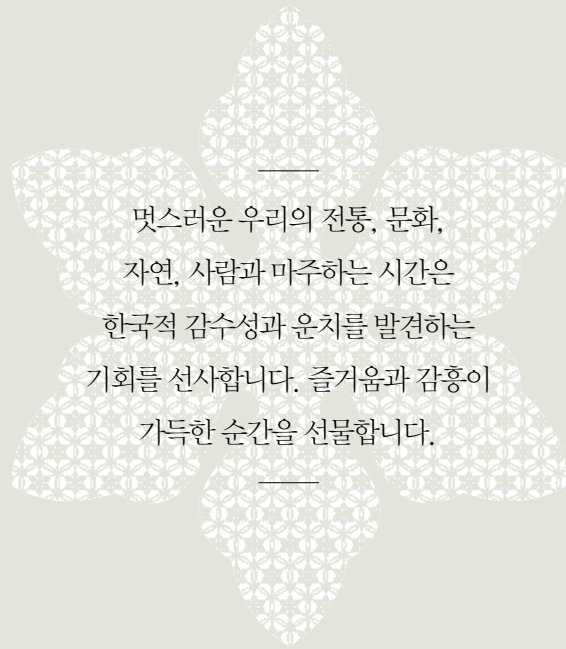
넓고 깨끗한 하버시티는 쇼핑을 위한 최적의 공간. 이곳에 위치한 설화수 하버시티 게이트웨이 매장은 실버코드 매장, 타임스퀘어 매장에 이어 세 번째 프리스탠딩 스토어(Free Standing Store)로서,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제품 체험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설화수의 홀리스틱 뷰티를 전파하고 있다. 홍콩의 유명 배우인 종려시(Christy Chung)가 쿠션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매장에 자주 방문하여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설화수 매장 입점 후 럭셔리 뷰티 브랜드들이 연이어 입점하며 하나의 럭셔리 코스메틱 뷰티 존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는 설화수의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특별히 TV 광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제품력으로, 설화수를 사용해본 사람들 사이에 입소문이 퍼지며 나날이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귀한 원료를 사용하는 과학적인 한방 브랜드, 피부의 근본을 치유해주는 제품으로 인식되면서 특히 상류층 사이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홍콩은 2004년 설화수가 첫 번째로 해외 진출한 도시로서 남다른 의미를 가진 곳이다. 이곳에서 설화수는 현재 총 11개의 매장을 운영하며 아시아 뷰티 크리에이터로서 글로벌 소비자를 만나고 있다. 설화수의 행보는 또 다른 아름다움을 낳으며 설화수만의 브랜드 가치를 전파하고 있다. S

설화수의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설화수 하버시티 게이트웨이 매장 고객에게 차별화된 제품 체험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uch an attractive city, such an attractive Sulwhasoo

The open and clean Harbor City is the most ideal shopping destination. Sulwhasoo's Harbor City Gateway Store is the third free-standing store after the ones established in Silvercord and Times Square, further spreading Sulwhasoo's holistic beauty through its distinguished products and services. It was in the spotlight when Christy Chung, a famous actress in Hong Kong, visited the store to purchase a cushion product. Moreover, luxury beauty brands have entered the market, thus creating a ring of luxury cosmetics and beauty, and again proving Sulwhasoo's global reputation. Those who have tried Sulwhasoo have quickly raved about its products through word of mouth, and have contributed to its popularity despite having no commercials. It is particularly popular among the upper class, as it is recognized as a scientific Korean herbal medicine brand that is formulated with precious ingredients for the essential refinement of the skin. Hong Kong is significant because Sulwhasoo opened its first international store there in 2004. Currently operating 11 stores to serve global consumers, Sulwhasoo is opening new doors to a new realm of beauty by spreading the value of its brand.



멋스러운 우리의 전통, 문화,
자연, 사람과 마주하는 시간은
한국적 감수성과 운치를 발견하는
기회를 선사합니다. 즐거움과 감동이
가득한 순간을 선물합니다.



가림과

이번 생, 그녀가 해야 할 일
오늘도 행복할 것
What she needs to do with her life -
Be happy all the time

So Yu Jin

소 유 진

백중원의 아내, 두 아이의 엄마 이전에 소유진은 소유진이다.
2000년 데뷔 후 오랫동안 소유진은 무척 바빴고, 대중은 그녀를 전혀 싫증 내지 않았다.
비교적 어린 나이에 데뷔했지만 명민했고 또 명랑했다. 뭐든 맡은 역할을 척척 해내던
이 발랄한 배우는 인생에 새롭게 주어진 역할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오늘도 행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글 이재영 진행 윤연숙 사진 전재호





엄마의 역할, 아내의 역할이 이제 맞는 옷을 입은 듯 근사하게 어울린다. 인생이라는 시간에 올라 탄 배우는 그 물길을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다. 워킹맘이라는 자신의 상황 또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이 되는 지점을 찾으려 한다. “워킹맘이 되고 워킹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됐어요. 일 년 전 <엄마도 아이도 즐거운 이유식>이라는 책을 낸 것도, 따라 하기 쉬운 간단한 레시피를 개인 SNS에 올리는 것도, 일하는 엄마들의 짐을 조금 털어주고 싶은 생각에서였어요. 쉽지 않았지만 즐겁게 작업했어요. 다행히 반응도 좋고,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니 그게 제일 기뻐요.”

지난해 책을 내고 독자에게 줄 이벤트 상품을 직접 만들었다. 규정상 책값의 10퍼센트로 준비해야 했는데, 양질의 사은품을 고민하다 보니, 직접 만드는 것만큼 적당한 게 없었다. 마블 식고 방향제를 선택했는데, 관련 자격증이 있어야 해서 그것도 취득했다. 큰아이 돌 답례품을 고민하다가 소이 캔들 자격증을 따고, 작은아이 돌 답례품인 수제 비누를 만드느라 아로마 관련 자격증을 따다.

“워낙 호기심이 많아 궁금증을 못 참는 성격 때문에 그래요. 자격증만 있을 뿐이지 오랜 경력의 전문가들에 비하면 허술해요. 그래도 계속 무언가에 도전하고 만들고 그 과정을 공유하는 이유는 엄마들이 힘냈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에요. 육아를 하면서 지치고 힘든데 작은 거라도 배우고 결과물을 손에 쥐면 스스로 힐링이 될 수 있어요. 엄마 마음이 평온해야 아이들에게도 더 충실하게 되니까요.”

SNS에 집밥 레시피를 올리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오늘 뭘 해 먹나?’ 하는 엄마들 숙제를 조금이라도 털어주고 싶었다. 집밥으로 유명한 남편이 선생님이 되어 레시피 컨펌도 해주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주기도 하니 다른 사람들보다 유리한 입장이란다.

“음식은 꼭 남편 때문은 아니고, 원래 좋아했어요. 어려서도 엄마가 음식을 하면 궁금해서 이것저

The role of a mother and the role of a wife both fit her well like they were tailored for her. The actress is going with the natural flow of her life. She has accepted her situation as a working mom and is finding ways to balance her priorities. “Now, I understand how working moms feel. I published <Baby Food for Happy Moms and Kids> a year ago, and post on my personal SNS simple recipes that are easy to follow because I wanted to alleviate the burden of many moms out there. It was not easy, but I enjoyed it. I am very happy that many people like what I do, and say that it is helpful.”

When she published the book last year, she made gifts for her readers as well. She was told to use no more than 10% of the price of her book, so nothing made better gifts than what she made herself. She chose to give marble plaster air fresheners. It required a certificate, so she obtained one first. She received a soy candle certificate to make thank-you gifts for her eldest child’s 1st birthday, and an aroma certificate to make homemade soap as thank-you gifts for her younger child’s 1st birthday.

“I have always been curious, and I can’t stand it until I found answers. I have certificates, but I am not as skillful as the experts with their many years of experience. I continue to challenge myself and create things, and then share the process to encourage other moms like me to try it themselves. Child rearing is exhausting, but learning to make things and actually creating something can be uplifting. Moms can be more devoted to their children when they are at peace.”

She has posted homemade food recipes on her SNS pages for the same reason. She hopes to

것 물어보고 제가 꼭 다시 해보곤 했죠. 연애할 때도 요리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가까워졌어요. 엄마가 된 이상 '밥'에서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그럼 그냥 즐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차피 하는 거 즐겁고 신나게!' 어떤 일에 부딪혀도 이렇게 마음먹으려고 하는데 밥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왕 하는 것 즐겁고 신나게!’는 육아뿐 아니라 일에서도 늘 같은 마음이다. 일할 때 아이들 생각하지 말고, 아이들이랑 있을 때 일 생각하지 말자고 다짐하고, 그대로 실천하고 있다. “하나에 충실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일할 때는 정말 열심히 해요. 쉬는 시간에 대본을 불지언정 집에 들고 들어가 외우거나 하지 않아요. 촬영 없이 쉬는 날이면 아이들과 하루 종일 집중해서 놀아주죠.”

그 덕인지 긴 주말드라마를 하는 동안에도 아이들이 일에 지장이 된 적은 없다. 쉬는 날만큼은 엄마가 자신에게 모든 걸 쏟아부어 준다는 걸 알아서인지,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일하는 걸 이해한다.

“사실 연년생 아이 둘, 아직 어릴 때라 주말드라마는 좀 부담이었는데 작품을 보니 너무 재미있어서 욕심이 나더라고요. 다행히 시청자 여러분도 많이 사랑해주셨고, 저에게도 일과 육아의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됐어요.”

드라마가 끝나고 바로 이어져 장진 감독의 연극 <꽃의 비밀>에서 자스민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훈련 덕분이었다. 일과 육아의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첫아이를 낳고 어리둥절했다는 소유진. 아직 나는 아가씨 같은데, 왜 내가 책임져야 하는 생명체가 앞에 있지? 나는 배우인데, 내 인생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나는 사라지고 엄마라는 역할만 남는 건가? 서둘러 둘째 계획을 가진 건 산후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였다. 아이가 둘이면 더는 방황하지 않고 자신의 역할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어차피 해야 할 거 즐기자. 이왕 이렇게 된

continue to ask, “What should I make today?” an assignment that can be easier for moms.
“I have always enjoyed cooking; and it’s not just because of my husband. I would ask my mom when I was younger, and learned about her recipes. Cooking brought me and my husband closer when we were dating. You never get a break from ‘food’ when you are a mother. So you’d better enjoy it. I try to ‘enjoy it when I can’t avoid it’ all the time, and cooking is not an exception.”
‘Enjoy it when I can’t avoid it’ has become her mindset not just in child rearing, but also in her work. She tries not to think of her kids when she is at work, and not to think of her work when she is with her kids. “I’ve decided to focus on one thing at a time. So I work really hard when I’m at work. I use my breaks to memorize lines so I don’t have to do it at home. When I can stay home all day, I play with them all day long instead.” That’s probably why her kids never bothered her even while working long weekends for a series. “My kids are one year apart, and they were still young when I was cast for a weekend series. But I really wanted to do it because it had a great story. The show became very popular, and it helped me find balance between my work and my kids.”
The experience trained her to play Jasmine in Director Jin Jang’s play <The Secret of Flowers> right after the TV series. It wouldn’t have been possible if she couldn’t balance her time between her work and her kids. So was confused when she had her first child. “I still feel like a single woman, but why is there a life that I should be taking care of? I am an actress; what would happen to my life? Will I disappear, and





거 빨리 낳아서 진짜 제대로 엄마 노릇 해보자. 내가 나를 인정하자, 했어요. 다행히 계획하고 바로 둘째가 생겼고, 예쁜 딸이 태어났죠. 지금 정말 좋아요. 마음도 편하고.”

그녀는 이처럼 매 순간에 충실하려고 한다. 매사에 감사하면서 대중들에게 긍정적인 기운을 전하고 싶어한다. 지치고 힘든 일, 물론 없지 않지만 내색하지 않으려고 한다. 다만 피할 수 없으니 받아들이고 조금이라도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는 것이다. 엄마가 즐거워야 아이도 즐겁고 남편도 즐겁고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고, 함께 일하는 스태프들도 즐겁고 그렇게 서로 즐거운 에너지를 얻게 되기 때문이다. 무섭게 집중해서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활짝 웃으며 잊었다는 듯 그녀가 말한다. “봄에 <설화수> 가족들이 나들이 갈 때 좋은 레시피 하나 알려드릴게요. 채소 안 먹는 우리 큰아도 정말 잘 먹는 요리인데, 스투예요. 집에 있는 소고기 아무거나 다 되고, 국거리용 양지도 좋아요. 고기를 볶다가 양파 넣어 볶고, 사과와 당근 간 거, 그 밖에 채소가 있으면 다 갈아서 넣어요. 케첩을 좀 넣고, 물을 자작하게 부어서 푹 끓이세요. 어느 정도 졸면 소금간을 해서, 파스타 면에 비벼도 되고, 빵을 찍어 먹어도 되고 그냥 먹어도 돼요. 식어도 맛있는 음식이라 나들이 요리로 딱이에요. 아이들 것을 덜고 나서 어른들은 후춧가루를 넣어 드시면 더 맛있어요.”

마지막에 전해주고 간 나들이 요리 레시피는 그녀의 인생 레시피만큼 간단했다. 주어진 것으로 맛있고 행복하게! 레시피를 따라 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대하는 마음가짐도 소유진을 흉내 내야겠다. 오늘도 행복하게! S

be nothing but a mom?” She quickly planned to have her younger child to overcome her postpartum depression. She admitted she began to accept her role as a mother when she had two children.

“I decided to enjoy it because I couldn't avoid it. I wanted to be a good mom of two. I decided to accept my position. Fortunately, my plan worked, and we got a beautiful daughter. I'm very happy and at peace right now.” She tries to do her best in every opportunity. She wants to be thankful, and to convey to the public her positive energy. She can be tired and overwhelmed sometimes, but she tries not to let it show. She just wants to be positive as much as possible because she can't avoid it. “I will tell you about a nice recipe for <Sulwhasoo> families' spring picnics. It's a stew that makes vegetables delicious even for kids that don't like eating vegetables, like my elder one. You can use any kind of beef; even brisket for soup. Cook the beef and add chopped onions. Add apples, carrots, and any other vegetables you can find ground. Add a little bit of ketchup, and pour water to simmer. When it's reduced a little bit, season with salt, and then serve it with pasta or bread, or all by itself. It's good even when cooled, so it's great for picnics. Oh, you should add some pepper to the stew for yourself after scooping some for your kids.”

Her picnic dish recipe was as simple and straightforward as her life. Stay tasty and be happy with what you have! Your mindset for each day of your life should be like hers as you try her recipe yourself. Be happy!

헤어&메이크업 박철, 수진(보이드바이박철) 스타일리스트 전민정 도움 주신 곳 Thyren(02-548-3956),

폼파니아(02-514-9006), 바바라(1644-1096), 클럽트주얼리(02-514-7749)

1 시간과 모순을 표현한 기하학 도형 액자 Objet 시리즈는 모두 허준을 작가. 2 벨벳 원목 프레임 소파는 컨테이너-1.
3 옷칠 마감한 소반형 사이드 테이블은 모두 권원덕 작가. 4 황토색 원형 옷칠 트레이는 박수이 작가. 5 베이지와 화이트가
배색된 컵은 SSO MIK by 서울번드. 6 카푸치노 잔은 3.CO by 서울번드. 7 금속 양면 촛대와 주머니, 글라스는 모두 권중모x
김윤진 작가 by 함Haam. 8 나전 3단 옷칠장 Dot's pattern 시리즈는 유남권 작가. 9 버려진 사물을 사진에 담아낸 작품
(시대정물)은 김용현 작가. 10 멀티컬러 카펫은 Patricia Urquiola 디자인으로 유앤어스.

집 안에 그림 한 점 마음에 두다

그림은 벽의 표정을 바꾼다. 벽은 그림으로 인해 작은 갤러리 또는 화폭이 될 수 있다.
의미를 두고 하나 둘씩 걸어도 좋고,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두어도 좋다.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고, 마음을 풍요롭게 만드는 그림 들이기.

에디터 윤연숙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문지윤(뷰로 드 플로디아) 어시스턴트 황남주, 장세희

자연의 숨결 가득, 세상 가장 온화한 공간

집 안에 그림을 잘 들이기 위해서는 공간과 그림 간의 조화가 중요하다. 특히 가족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실은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 좋다. 들여다보고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지는 자연의 모티브를 지닌 포토 액자들이 감각적이면서도 안정감을 선사한다.



왼쪽 페이지 | 1 잔잔한 바다가 펼쳐진 액자는 <See, Sea #02> 박정표 작가 by 갤러리룩스, 2 미국 유타주의 호수를 촬영한 작품 <Fall in the river> 하시시박 by Collog E, 3 <SaTAND ZOO #06> 시타 작가 by 갤러리룩스, 4 투명한 유리 화병은 Buro, 5 블루 페탈 볼과 마크 베이스는 양유완 작가 by 체어스온더힐, 6 손잡이가 달린 가죽 케이스와 트레이는 모두 허명욱 작가 by 조은숙 갤러리, 7 블랙 컬러의 거실장은 시세이, **오른쪽 페이지** | 올리브 잎 프린팅 포스터는 하일리힐즈, 2 팜트리 포스터는 워그레이테일, 3 옷칠 작업 액자는 박수이 작가, 4 빈티지 월 셸프는 카우리, 5 꽃 프린트 작품 <오색찬란>은 김용현 작가, 6 베이지 컬러 안체어는 차비, 7 소호 라인 머그컵은 이도yido, 8 오목이 화병은 비믹스, 9 사이드 테이블은 Jader Almeida의 디자인으로 캡터원

왼쪽 페이지 1 월 램프는 아르프 2 옹기 밥그릇은 아우로이 by 일상여백 3 주전자와 합을 그린 <still life O>은 이미주 작가 by 이목갤러리 4 타원형 캔버스 작품은 고지영 작가 by 이목갤러리 5, 10 벽에 붙인 옷칠 접시와 굵이 있는 우드 트레이 모두 박수이 작가 6 지음 금테 잔은 이세용 작가 by 일상여백 7 작은 월 셀프는 비모토리빙 8 색색의 볼을 그린 작품은 황현승 작가 by 이목갤러리 9 한지를 콜라주하여 휴과 채색한 작품은 <생명에 관한 어떤 이야기들> 이기숙 작가 by 갤러리씨포먼트 11 옷칠 파스타 볼은 성광명 작가 by 조은숙 갤러리 12 동과 은으로 만든 피쳐는 류연희 작가 by 조은숙 갤러리 13 그린색 녹유 접시는 이세용 작가 by 조은숙 갤러리 14 옷칠 컵은 김옥 작가 by চে어스온더힐 15 라운드 테이블은 바이헤이데이 16 블루 다이닝 চে어는 보컨셀

오른쪽 페이지 1 원뿔형 펜던트는 아테라이팅 2 귀여운 곰돌이가 그려진 액자는 웜그레이테일 3 밝은 연두색 다이닝 চে어는 보컨셀 4 프레임 없는 작은 그림은 일러스트레이터인 이진희 작가 5 단란한 가족의 모습이 그려진 액자는 제로퍼제로 6 옷칠 작업 액자는 박수이 작가 7 철 2단 도사락은 허명욱 작가 by 조은숙 갤러리 8 소나무 서랍장은 LOFT by 도이차기루



그림 탐닉, 일상을 경쾌하게

그림은 공간에 색다른 힘을 더하고 나른한 일상에 경쾌한 포인트가 된다.
 과거에는 유명 작가의 그림을 선호했지만 최근에는 누구나 쉽게 감상할 수 있는 아트 프린트나 포스터가 인기다.
 자신의 예술적 감성과 취향을 고려해 오래 보아도 질리지 않는 그림으로 생동하는 공간을 완성한다.





한국의 미와 자연의 아름다움이 어우러지다

능수버들과 수양버들이 늘어진 연못, 초록빛이 반짝이는 너른 잔디밭, 색색의 꽃이 반기는 정원 등 한창의 봄이 가만가만 이야기한다.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가 정성스럽게 가꾸진 수목원에서 마주하는 자연과 미의 속삭임들.

에디터 윤연숙 사진 이종근, 토크이미지

숲 사이로 연못 풍경, 자연의 향기 그득하다

우거진 숲길을 따라 천천히 발을 내딛다 보면 멋스럽게 늘어진 버드나무와 한 폭의 그림처럼 들어선 정자 '파련정'이 고아한 모습을 드러낸다. 벽초지푸를 벽괵, 풀 초, 못 지(池) 문화수목원은 이름처럼 푸른 풀들이 연못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운치를 지아낸다. 연못 중앙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든 다리를 따라가면 자연의 넉넉한 아름다움이 펼쳐지고, 보는 이는 풍경의 일부가 된다.



계 절 의 아름다움 속에서 이상적인 아름다움이 피어나다

설화수의 철학과 가치를 담은 시그니처 상품인 윤조에센스가 론칭 20주년을 맞아 대용량 리미티드 에디션을 선보인다. 설화수 고유의 패턴인 매화문 꽃살 문양을 더해 은은한 기품이 배어 있는 디자인으로 설화수가 지향하는 조화와 균형의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한다. 윤조에센스 20주년 리미티드 에디션 120ml. 매년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아트 컬래버레이션으로 소장 가치 높은 리미티드 에디션을 선보였던 설화수. 올해는 행운과 기쁨을 상징하는 길조인 황금새 한 쌍과 인연을 상징하는 붉은 실의 어울림으로 미감을 높였다. 잡티 없이 건강한 탄력과 윤기를 선사하는 '퍼펙팅쿠션'과 매끈하게 피어나는 빛 반사로 온종일 화사한 피부를 선사하는 '퍼펙팅쿠션 브라이트닝'이 행운과 기쁨을 선사한다. 퍼펙팅쿠션 15gx2 / 퍼펙팅쿠션 브라이트닝 15gx2.

동서양의 미가 공존하는 휴식의 공간

연못을 중심으로 동양적인 아름다움을 간직한 수목 공간이 펼쳐지는 동시에, 화려하게 꾸며진 여왕의 정원과 유럽 스타일의 조각 공원에서는 서양 정원의 미학이 펼쳐진다. 잘 가꾸어진 산책로와 정원에서의 휴식은 싱그러운 시간을 맞이하게 한다.

차 한 잔과 그림처럼 어울리는 茶果

창문을 열어 코끝을 간지럽히는 봄바람을 맞이합니다. 진하게 우린 차 한 잔에 인생의 향기를 음미하고 소담하게 만든 우리식 디저트를 먹으며 잔잔한 삶의 여유를 즐깁니다.

푸드 아티스트 노영희 에디터 권지에 사진 문성진



아이도 어른도 상큼하게 즐겨요

유자 젤리



재료

유자청, 판 젤라틴, 토핑용 과일

만드는 법

1 물에 유자청 5~6큰술을 넣고 끓인 뒤 식혀 체에 한 번 거른 다음 컵에 붓는다. 2 약한 불에서 판 젤라틴 1장을 녹인 뒤 1의 컵에 넣고 잘 섞는다. 3 냉장고에서 한 시간 이상 굳혀 탱글한 젤리로 완성되면 원하는 과일을 토핑한다.

어여쁜 꽃잎으로 마음을 전해요

진달래 화전



재료

진달래 꽃잎, 찹쌀가루 1컵, 소금 약간

만드는 법

1 찹쌀가루 1컵에 소금을 조금 넣은 후, 끓는 물을 조금씩 부어가며 반죽한다. 2 반죽이 킷볼처럼 말랑말랑해지면 조금씩 떼어내 볼을 만들어놓는다. 3 기름을 두른 프라이팬에 볼을 하나씩 올린 다음 중간 불에서 서서히 익힌다. 4 수슬을 떼고 깨끗이 씻어놓은 진달래 꽃잎 한 장을 볼 위에 올려 기름을 이용해 잘 붙인다. 5 접시 위에 꿀을 뿌린 다음 노릇하게 구워진 진달래 화전을 올려 낸다.



은은하고 프레시한 맛과 향으로 마음을
편안히 다스려주는 설화수 티컬렉션
매화차*, 백자의 묘미를 살려 만든 다기
세트는 이창화 작가 작품.

*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 익스클루시브 에디션



홍삼 특유의 씹새래한 맛과 발효차의
은은한 단맛이 조화를 이루는 설화수
티컬렉션 홍삼발효차*, 도기의 토속적인
아름다움이 배어 있는 합은 이강호 작가 작품.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 익스클루시브 에디션

가족들과 담소와 사랑을 나눠요
들깨 강정



재료

들깨 1컵, 엿 50g, 조청 2큰술

만드는 법

1 쪄낸 엿 50g에 조청 2큰술을 넣고 중탕으로 끓여 잘 녹인다. 2 준비한 1에 들깨 1컵을 넣고 잘 섞는다.
3 트레이에 랩을 깔 다음 2를 붓고 그 위에 다시 랩을 덮는다. 4 원하는 두께가 나올 때까지 밀대로 밀어
평평하게 만든 뒤 냉장고에 넣어 굳힌다.



달콤한 인생, 달콤한 여행

Paris & Brussels

파리 & 브뤼셀

여행을 떠난 이후 매순간이 즐거움의 연속은 아닐 것이다. 어쩌면 여행이란 미지의 즐거움들을 맞이하기 위한 기다림인지도 모른다.

이럴테면 아주 맛있는 디저트를 크게 한 입 베어 문 순간 같은.

에디터 민소연 사진 토픽 이미지, 셔터스톡

흔히 프랑스는 '미식의 천국'이라 불린다. 또한 '디저트 애호가들의 천국'이라 할 만큼 디저트의 본고장이기도 하다. 상상을 불허하는 다양한 식재료로 차려낸 호화스러운 정찬이 먼저 떠오르지만, 언제나 그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은 아름답고 향기로운 디저트다. 결코 거부할 수 없는 유혹. 마카롱은 그중 파리를 대표하는 디저트다.

아몬드 파우더와 설탕, 달걀흰자 거품으로 만드는 이 사랑스러운 과자는 겉은 바삭하게 속은 부드럽게 만들어야 하는 까다로운 공정으로 파티시에의 실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마카롱은 8세기 이탈리아의 수도원에서 처음 시작됐지만 그 모습은 투박하고 평범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록달록 어여쁜 외양은 16세기 이후 파리로 건너오고 나서의 변모다. 파리 상젤리제 거리에서 만날 수 있는 '라뒤레'는 세계에서 가장 맛있다는 마카롱 가게. 1862년에 오픈해 무려 150년의 역사를 가진다. 또한 프랑스를 대표하는 제과 명장 피에르 에르메의 마카롱도 놓칠 수 없다. 특히 그가 선도한 장미 마카롱은 한 입 물면 입안에 꽃향기가 가득해진다. 프랑스 미식 여행은 미식 그 이상이라 더 특별하다. 파리 시내를 거닐다 만나는 수많은 디저트 숍과 카페, 레스토랑에는 각각 오랜 전통과 역사, 그에 대한 자부심이 나이테처럼 새겨져 있다.

France is often called the 'haven of gourmet food.' It is also the home of desserts that attracts many dessert lovers. You might think of the extravagant table setting with different ingredients beyond one's imagination, but it all ends with beautiful and flavorful desserts. Macaron, an irresistible temptation, is the signature dessert in Paris. This lovely confectionery, which is made with almond powder, sugar, and meringue, is often used in measuring the skills of dessert chefs, as it requires advanced skills to make a macaron crispy on the outside and soft on the inside. Macaron was first created at a monastery in Italy in the 8th century, but it looked coarse and ordinary. Today's colorful and cute macarons were developed after they reached Paris in the 16th century. Laduree at the Champs-Elysees in Paris is known as the maker of the world's most delicious macarons. Established in 1862, it has been selling macarons for more than 150 years. Also, you can't miss the macarons of Pierre Herme, the French confectionery master. His rose macarons infuse your mouth with the scent of flowers with every bite. Your epicurean trip to France is much more than just trying out gourmet food. The countless cafés and restaurants you encounter in downtown Paris boast of the unequalled beauty of long tradition, history, and pride.

파리의 무수한 '살롱 드 테(Salon de the)'는 다방과 제과점을 합친 일종의 찻집이다. 1862년에 생긴 라뒤레(Ladurée)는 지금까지도 마카롱의 명가로 명성을 잇고 있다.





뉴욕이나 파리의 밤이 백화점 쇼윈도의 화려함으로 물들어진다면, 브뤼셀은 초콜릿 가게의 달콤한 향기로 가득하다.
 '초콜릿 초집중 지역'인 그랑플라스를 중심으로 반경 1킬로미터 내에 무려 40개의 초콜릿 가게가 모여 있다.

동화 속 나라에 와 있는 기분이란 이런 것일까? 장난감 집처럼 아기자기하면서도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늘어서 있는 거리를 천천히 걷는다. 긴 세월이 아로새겨진 돌길 하나도 시간의 윤기를 가지는 거리. 또한 참을 수 없이 달콤한 향이 가득하기도 하다. 바로 곳곳에 있는 초콜릿 가게 때문이다. 벨기에는 초콜릿 생산량 연간 14만 톤, 2조 원의 매출을 자랑하며 고디바나 길리안, 레오니다스 등 유명 브랜드의 고향이다. 초콜릿 강국답게 그랑플라스 옆 골목에는 초콜릿 박물관이 있다. 카카오 재배에서 초콜릿이 되기까지의 과정과 역사 속 이야기가 흥미롭게 펼쳐진다. 또 원산지별 카카오로 만드는 초콜릿들을 무료로 시식해볼 수도 있다. 그랑플라스 광장 자갈길을 따라 오밀조밀 모여 있는 고급 초콜릿 숍들에는 늘 관광객이 북적인다. 무엇을 고를까 고민하는 순간마저 즐겁게 괴롭다. 진열대에 놓인 아름다운 초콜릿들 중 유독 눈에 띄는 프랄린은 견과류와 크림, 버터 등으로 속을 채운 밤톨만 한 초콜릿으로 벨기에의 특산품. 그 종류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쇼콜라티에가 마치 보석을 세공하듯 공들여 만들어낸 프랄린 한 조각을 입에 넣으면, 그 씹싸름한 달콤함과 함께 여독도 사르르 녹아버린다. S

Would this be what it would feel like in a fairy tale land? You stroll down the streets along the attractive antique buildings. The streets, where every alleyway tells the passing of time, are filled with irresistibly sweet flavors. This is because of the chocolatiers. Belgium produces 140,000 tons of chocolate a year, and sells 2 trillion KRW worth of chocolate. It is the home of famous brands such as Godiva, Guylian, and Leonidas. Known for chocolates, there is a chocolate museum on an alleyway by the Grand Palace. You can listen to interesting stories on the process of making chocolate from cultivating cacao and the history of chocolate. You can also taste different kinds of chocolate out of cacao from various regions. Chocolatiers around the Grand Place in Brussels are always busy with tourists. It can be happily agonizing to pick from so many choices. Among the delectable chocolates on display, praline draws your attention with nuts, cream, or butter inside. It is Belgium's signature product. There are so many choices that you can't even count them all. When you sample a piece of praline that has been carefully crafted by an expert chocolatier, your fatigue will melt away with its bittersweet taste.

매일의 일상에 윤택함이 함께하다

유해 물질이 가득한 도시 환경 속에서 흐트러진 피부 균형을 찾는 길, 피부 본연의 건강함을 되찾는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방법. 설화수 에센셜 라인에서 발견할 수 있다.

에디터 윤연숙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문지윤(뷰로 드 끌로디아) 어시스턴트 황남주, 장세희



종이의 정교함과 구조적인
활용성을 폴드(Fold) 기법으로
표현. 입체감을 살렸다.
이영아 작가의 'Overlap Plate'.

윤조에센스 First Care Activating Serum EX

50년 한방 연구의 정수인 자음단™의 힘으로 흐트러진 피부 균형을 바로잡아
모자람 없는 윤기를 선사하는 첫 단계 에센스. 1997년 탄생 이후, 20년 동안
줄곧 설화수 베스트&스테디셀러 제품으로 자리하며, 전 세계 여성들에게
홀리스틱 뷰티를 선사하고 있다. **How to Use** 아침, 저녁 세안 후 첫 단계에
사용해 다음 단계 제품의 효과를 높여준다. 손바닥에 2~3회 정도 펴핑한
후 피부 결을 따라 손끝으로 펴 발라준다.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얼굴을 감싸
흡수시킨다.

윤조 마스크 First Care Activating Mask

윤조에센스의 효능을 가득 담아 새롭게 태어난 윤조마스크, 자음단™을
미세망 코튼 시트(Micro net radiance sheet)에 오롯이 담아 효능 성분이
피부에 가득 스며들어, 매끄럽고 탄력 있는 피부로 가꿔준다. 윤조에센스와
함께 사용하면 더 강력한 윤의 절정을 경험할 수 있다. **How to Use** 일주일에
1~2회 아침 또는 저녁 세안 후 첫 단계에 스페셜 케어로 사용한다. 마스크
시트를 펼쳐 얼굴에 고르게 밀착하고 10~20분 후에 떼어낸다. 남은 미용액은
두드려 흡수시킨다.

자음수와 자음유액
Essential Balancing Water EX & Emulsion EX

적은 양으로도 피부를 충분히 적셔주고 부드럽게 퍼져 촉촉함을 선사하는 젤 타입 스킨 자음수. 마치현 추출물이 수분을 빠르게 공급하고 피부를 진정시켜 오래도록 편안하게 한다. 매끄럽게 발리고 말끔히 흡수되어 피부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소프트 로션 자음유액. 차마버섯 유래 성분이 피부를 부드럽고 촉촉하게 하여 맑은 기운을 더해준다. **How to Use** 아침 저녁 윤조에센스 사용 후 자음수를 손에 덜어 피부 결을 따라 발라준다. 자음수를 바른 후 사용하는 자음유액 역시 손바닥에 적당량을 덜어 부드럽게 얼굴을 감싸듯 펴 발라준다.



플드(Fold) 기법으로
입체감을 실린 도자 작품으로
이영아 작가의 'Weave'.

실용성과 심미성을 갖춘 꽃 잔
백제 삼족기(三足器) 형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물들이기 기법을 적용한
나뭇잎 접시 세트는 모두 신희창 작가 작품



섬 리안 크림
Essential Rejuvenating Eye Cream EX

섬세한 눈가 피부에 얇게 밀착되어 부드럽고 촉촉하게 감싸주는 주름 개선 아이크림. 효소 처리한 홍삼 사포닌 성분이 눈가 주름을 탁월하게 개선하고, 은행잎과 꿀 성분이 눈가 피부를 건강하고 생기 있게 만들어준다. 피부에 잘 퍼져 스며드는 묽은 텍스처가 더욱 편안한 사용감으로 마무리해준다. **How to Use** 아침 저녁 에센스 사용 후 적당량을 취해 눈가 부위를 중심으로 바르고, 손끝으로 톡톡 두드려 흡수시켜준다.

탄력 크림
Essential Firming Cream EX

피부 탄력의 근본부터 연구해 찾아낸 한방 복합체 지선체™가 탄탄한 피부로 가꿔주는 탄력 강화 크림. 손끝에서 느낄 수 있는 존속한 텍스처가 피부 위에는 부드럽게 발리고 피부 속에는 밀착력 있게 흡수되어 긴장감이 돌 듯 팽팽하고 탄탄한 탄력을 선사한다. **How to Use** 아침, 저녁 기초 손질 후 사용. 제품을 손바닥에 덜어낸 후 이마와 양 볼, 콧등, 턱에 짝여 바른다. 문지르지 말고 가볍게 두드리며 제품을 흡수시켜주며, 탄력이 필요한 부분에 덧발라 한 번 더 두드려준다.



용기도를 활용하여 접시의
날개 부분에 라인 장식한
접시 세트는 신화창 작가 작품.



에센셜 라인 외부 환경의 영향으로 피부 건강에 위협적인 요소들이 많은 계절이다. 평소 건강했던 피부라도 예민해지기 일쑤고 노화도 빨라진다. 이럴 때일수록 피부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피부 본연의 힘을 강화해 균형을 찾아주는 제품을 선택하여, 피부 스스로 건강해지도록 해야 한다. 설화수 에센셜 라인은 메마른 피부를 안팎으로 충실하게 보필해 윤택하고 촉촉한 피부 본연의 건강함을 찾아준다. 흐트러진 피부 균형을 되찾고, 충분한 보습과 영양, 탄력을 실현해 안티에이징의 기초를 잡아준다. 에센셜 라인은 1997년 전문 한방 화장품 브랜드 '설화수'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할 때부터 함께했던, 브랜드의 초석을 탄탄히 하는 대표 라인으로 설화수의 홀리스틱 뷰티 철학을 몸소 경험할 수 있게 한다. S

Essential Line Your skin faces threats from many external aggressors at this time of the year. It is important for you to choose products that do not only protect the skin, but also fortify your skin's natural strength to restore balance and keep your skin healthy. The Sulwhasoo Essential Line firmly replenishes dry skin inside and out, and restores the skin's health through moisturization. It balances the skin and supplies ample moisture, nourishment, and resilience to combat aging. The Essential Line is the brand's signature line that has been affiliated with Sulwhasoo since exploring a new market as a specialty Korean herbal medicinal brand in 1997, thus allowing you to experience Sulwhasoo's philosophy of holistic beauty.



귀한 이를 위한 마음 담은 설화수의 특별한 포장 Sulwhasoo's special wrapping service with utmost devotion toward its customers

설화수의 특별한 포장 서비스 지함보가 플래그십 스토어 1주년을 기념해 새롭게 단장했다.
아름다움을 밝히는 지혜의 빛, 랜턴 모티브의 보자기 서비스가 따뜻하고 소중한 마음에 힘을 더해준다.

에디터 민소연 사진 김민은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에서는 오픈 1주년을 맞아 아름다움을 밝히는 지혜의 빛,
'랜턴' 컬렉션을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랜턴의 빛을 머금은 랜턴 보자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 2층의 포장 서비스 공간에서는 '지혜를 담은 함과 보자기'라는 의미를 담은 지함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포장은 크게 무상과 유상으로 나뉘는데, 무상 서비스는 쇼핑백과 지함 등으로 구성된 기본 포장 타입으로, 설화수의 시그니처 컬러인 호박 빛이 테마 컬러로 이루어져 한복 옷고름을 본떠 만든 리본 장식과 설화수 고유 패턴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 동양적이면서 현대적인 감각과 기품이 받는 이에게 기쁨을 더한다. 유상 서비스는 명절 선물이나 결혼 예단 등 특별한 날을 빛내기 위해 부족함이 없도록 정성과 품격을 담아낸다. 특히 한국 고유의 독창적이고 다채로운 미의식이 엿보이는 보자기는 예부터 상대를 위한 복을 기원하는 정성스런 마음이 깃들여 있다. 지함보 포장의 주재료이기도 한 이 아름다운 보자기들은 다양한 쓰임새로 재활용할 수 있어 그 어떤 포장재보다 환경친화적이다. 따라서 귀한 선물의 기쁨이 오래오래 지속될 것이다. 지난 4월부터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에서는 오픈 1주년을 맞아 아름다움을 밝히는 지혜의 빛,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의 모티브인 '랜턴' 컬렉션을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랜턴의 빛을 머금은 랜턴 보자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단아하고 우아한 보자기의 매듭을 한 겹 두 겹 푸는 동안, 선물을 받은 주인공의 표정 역시 달빛처럼 환해질 것이 분명하다. S

The wrapping service zone at the 2nd floor of the Sulwhasoo Flagship Store provides Ji Ham Bo Packaging Service, which means 'a box and cloth containing wisdom.' The wrapping service is mainly classified as a free or a paid type of service. The free wrapping service consists of the basic wrapping service with a special bag and box. The signature amber color of Sulwhasoo is used as the theme color, and is combined with a ribbon decoration inspired by the Hanbok ties and Sulwhasoo's original patterns. The charged service is delivered with the dedication and quality that is suitable for special occasions, such as when wrapping holiday gifts or wedding gifts. The wrapping cloth that reflects Korea's original aesthetics has always represented devotion and special blessings. A beautiful wrapping cloth is used to wrap Ji Ham Bo, and it can be re-used in different ways, thus it is more environmentally-friendly than any other wrapping materials. Therefore, the pleasure of receiving such a valuable gift that is beautifully wrapped will go a long way. Since April, the Sulwhasoo Flagship Store has offered a wrapping service inspired by the light of a lantern-- wisdom that lits up beauty--to all customers who purchase the 'Lantern' collection, in celebration of its 1st Anniversary. The recipient of your gift will certainly be delighted as seeing the moonlight as they undo the knots on the elegant and graceful wrapping cloth.

내외면의 아름다움이 당신 곁에 머무는 신록의 계절

기쁨과 행운을 전하는 '황금새'를 품다

설화수는 전 세계 고객들이 보내주는 뜨거운 사랑에 보답하고자 금조화의 우아함과 섬세함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탄생시킨 퍼펙팅쿠션 리미티드 에디션을 선보였다. 2015년 모란도, 2016년 화접도에 이은 2017년 리미티드 에디션은 전통 민화와 풍속화를 현대적으로 풀어내는 홍지연 작가와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만개한 꽃과 인연을 상징하는 붉은색 실, 길조인 황금새 한 쌍을 담아 행운과 기쁨의 메시지를 전한다. 탄력 있고 매끄러운 윤기를 선사하는 '퍼펙팅쿠션'과 자연스럽게 화사한 피부로 가꿔주는 '퍼펙팅쿠션 브라이트닝'으로 구성된 이번 리미티드 에디션은 전통과 현대의 아름다운 조화를 통해 마치 하나의 예술품처럼 소장 가치를 높였다. 퍼펙팅쿠션 리미티드 에디션 15g×2, 6만원대 / 퍼펙팅쿠션 브라이트닝 리미티드 에디션 15g×2, 6만5000원대



피부 균형을 맞추는 윤조마스크로 최적의 피부 결을 만나다

지난 20년 동안 줄곧 설화수의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켜온 윤조에센스의 효능을 마스크에 가득 담은 윤조마스크가 출시됐다. 피부 근본을 다스리는 설화수만의 고유 처방인 자음단™성분을 미세망 코튼 시트에 오롯이 담아 피부 진정과 최적의 피부 결을 선사하는 집중 밸런싱 케어 마스크로, 촉촉하고 매끄러운 피부로 거듭나게 한다. 끈적임 없이 쏙 흡수되는 산뜻한 사용감과 자연의 은은한 허브 향으로, 마스크를 붙이고 있는 동안 마음까지 평온해지는 느낌이다. 매일 윤조에센스를 사용하면서, 일주일에 1~2회 윤조마스크로 스페셜 케어를 하면 보습으로 꽉 찬 윤의 절정을 경험할 수 있다. 윤조마스크 5매, 6만원대(5월 출시)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에 퍼진 향긋한 차 향기

설화수는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 1주년을 기념해 '익스클루시브 티컬렉션'을 선보였다. 귀한 홍삼을 블렌딩해 깊은 풍미를 담아낸 홍삼발효차를 비롯해 매화차, 세작, 삼다연 제주영굴 등 모두 4종으로 구성된 이번 티컬렉션은 설화수에서 최초로 출시되는 티 제품으로, 설화수의 미학과 오설록의 노하우가 만나 탄생했다. 자연의 생동하는 숨결을 한 잔의 차에 담아, 내면과 외면을 가꾸는 홀리스틱 뷰티를 체험할 수 있는 이 제품은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에서만 특별하게 만나볼 수 있다. 설화수 티컬렉션 홍삼발효차 1.5g×10ea, 2만5000원대 / 매화차 1g×10ea, 2만5000원대 / 세작 1.5g×10ea, 2만원대 / 삼다연 제주영굴 1.8g×10ea, 1만5000원대(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 익스클루시브 에디션)



설화수
雪花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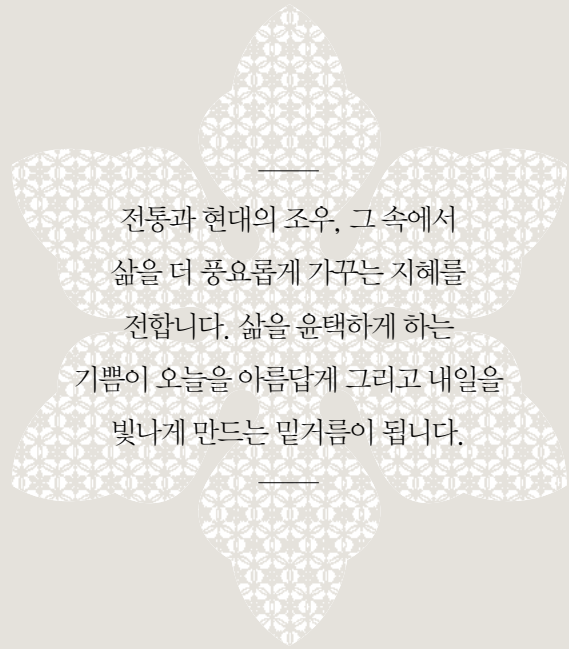
Sulwhas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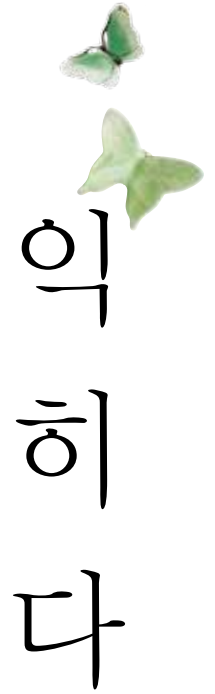
눈부시게 피어나는 빛반사로 매끈하게 빛나는 화사함을 입다 설화수 퍼펙팅쿠션 브라이트닝

피부 바탕이 매끄러워질 때 피부는 빈틈없이 빛을 반사합니다
다각도 빛반사로 화사한 피부빛을 선사하는 설화수 퍼펙팅쿠션 브라이트닝
목련 추출물과 진주모 콤플렉스가 피부에 화사한 빛을 선사하고 보송하고 가벼운 마무리감으로
자연스럽게 환해지는 피부를 가꿔줍니다. 이제, 터치만으로 매끈하게 빛나는 화사함을 경험하세요





전통과 현대의 조우, 그 속에서
삶을 더 풍요롭게 가꾸는 지혜를
전합니다. 삶을 윤택하게 하는
기쁨이 오늘을 아름답게 그리고 내일을
빛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푸르른 공중 정원이 나만의 공간으로 들어왔다

행잉 플랜트 만들기

삭막한 시야를 맑게 힐링하는 초록 식물들. 거실이나 침실 등 실내에서도 얼마든지
식물을 키울 수 있는 '행잉 플랜트'에 대해 배워본다.

에디터 민소연 사진 김민은 도움 주신 곳 블루멘박

식물을 키워낸다는 것은 무척 까다롭고 수고스러운 일이다. 그것이 작은 풀꽃 한 뿌리라도 그렇다. 분주한 일상에 쫓겨 스스로의 끼니조차 잘 챙기지 못하는 일이 허다하지만, 짬을 내어 화분에 물을 주거나 벌을 쫓아주는 시간은 예상치 않은 위안과 치유의 힘을 가진다.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같던 난초가 별안간 꽃대 끝에 예쁜 봉오리를 만드는 순간의 그 희열을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

그런데 수고와 귀찮음을 감수할 각오가 되었다 해도, 도시 안에서 식물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장애물을 넘어야만 한다. 식물들을 놓을 공간을 확보하는 문제도 그중 하나다. '행잉 플랜트(Hanging Plants)'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면서 미적인 효과도 높은, 스마트한 대안이다.

눈높이에서 마주하는 녹색 생명들

“요즘은 식물 자체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엔 특별한 날에 건네는 선물 정도로 여겨졌지만, 이제 삶을 함께하고 힐링의 역

할도 하는 중요한 친구죠. 행잉 플랜트는 인테리어 효과도 훌륭하고 키우기 쉽기 때문에 홈가드닝 초보자들이 도전해볼 만합니다.” 행잉 플랜트를 직접 배우려 찾은 플라워숍 '블루멘박' 박민정 대표의 조언이다. 행잉 플랜트는 말 그대로 식물을 매단다는 뜻. '행잉 가든(Hanging Garden)'이라고도 한다.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이 아닌 이상 정원을 가꾸기 쉽지 않은 도시인에게 이 공중 정원은 무척 매력적인 아이템이다. 식물의 길이에 따라 매다는 높낮이에 차이를 두면 더욱 감각적인 공간을 연출할 수 있다. 딱히 어려운 공정이 없고, 길어놓도록 만든 화기에 식물을 담고 벽이나 천장에 걸면 끝이라 실제로 시도하기 어렵지 않다.

행잉 플랜트에 주로 이용되는 식물은 아래로 길게 늘어지는 종류를 선택한다. 또한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되는 식물이 적합하다. 디시디아나 립살리스, 틸란드시아 등이 대표적이다. 틸란드시아는 요즘 먼지 먹는 식물로 인기가. 흠에 심지 않고 공기 중 수분과 먼지 속에 있는 양분으로 자라기 때문에 접시나 용기에 올려놓기만 해도 잘 자란다. 즉 행잉 플랜트로 키우기 최적화된 공중 식물. 햇빛이 잘 들고 공기가



행잉 플랜트 만들기

준비물 립살리스 등 행잉용 플랜트, 행잉용 화기, 노끈, 마사토(또는 코코넛 껍질), 이끼 가위 등

- 1 화기에 달린 줄에 노끈을 감아 단단하게 고정시킨다.
- 2 화기에 마사토를 넣는다. 마사토는 배수층을 만들어 식물이 잘 자라게 한다.
- 3 포트에서 꺼낸 식물은 그대로 심어도 좋고, 화기가 작을 경우에는 알맞은 크기로 뿌리를 조심스럽게 나누어 넣는다. 포트에 담겨 있던 나무껍질을 화기에 담고 식물을 잘 고정시킨다.
- 4 이끼로 덮어 마무리한다. 이끼는 최대한 자연 상태와 환경을 비슷하게 만들어주고 수분을 유지시켜준다.
- 5 완성된 화기를 적절한 곳에 매달다. 식물의 성질에 따라 양지에 두거나 직사광선을 피한다.

플라워 슝 '블루멘박' 체계적인 커리큘럼과 다양한 플라워 어레인지먼트, 가드닝을 통해 '블루멘박'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배울 수 있다. 수강생의 수준과 목표에 따라 5개의 클래스를 운영 중이다(위치: 강남구 신사동 568-1 / www.blumenpark.com / 02-518-5660)



잘 통하는 곳에 매달아두고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분무기로 수분을 공급해준다. 이번에 직접 만들어본 행잉 플랜트는 립살리스로 생김새가 독특한 선인장과와 식물이다. 잘록한 마디들로 이루어져 아래로 자연스럽게 처지는 형태다. 선인장과와 많은 수분이 필요하지 않고 배수가 잘되는 나무껍질에서도 잘 자란다.

어떤 화분이든 매달면 행잉 플랜트가 되겠지만, 너무 무겁거나 물을 자주 줘야 하는 식물은 피하도록 한다. 보통 행잉 플랜트로 쓰이는 식물은 립살리스나 틸란드시아처럼 나무껍질이나 코코넛 껍질에서도 뿌리가 잘 자리 잡는 종류다. 또한 아이비나 양치식물 등 수분을 좋아하는 식물을 행잉하려면 촉촉한 이끼를 이용해 수분을 유지시켜주면 된다.

요즘 행잉 플랜트가 인테리어 아이템으로 각광받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디자인의 행잉 화기가 판매되고 있다. 투명한 유리 화기는 식물의 광합성을 돕기도 하고, 청량한 아름다움도 지니고 있다.

“행잉 플랜트의 매력은 까다로운 제약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화기도 마찬가지로, 집에 있던 오래된 바구니나 주전자를 매달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나만의 개성이 담긴 정원이 완성될 수 있을 거예요.”

박민정 대표는 규칙에 집착하지 말고 자유롭게 자신만의 정원을 만들어보라고 권한다. 인테리어용 철망이나 타공판 등을 벽에 설치하면 행잉 화분을 더욱 자유롭게 걸 수 있다.

식물이 함께 하는 생활의 즐거움

행잉 플랜트는 집 안 곳곳 활력을 주고 공기 청정 효과도 탁월하다. 주방이나 욕실에 두면 맛있는 분위기를 단번에 해소시켜준다. 욕실은 샤워 커튼 봉에 걸어두면 되기 때문에(너무 무거운 식물이나 화기는 피하도록) 더욱 편리하다.

마침 팬톤(PANTONE)이 선택한 올해의 컬러는 그리너리(Greenery)다. 녹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된 회색빛 도시 생활 속에서, 행잉 플랜트는 나만의 개인 녹지이자 생생한 '그리너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보다 식물은 생명력이 강하고,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면 스스로 잘 자란다. 단지 종류별 특성을 알아두는 것만 잊지 않도록 한다. 다른 생명과 공간을 공유하고 친구가 되기 위해서 그 정도 관심과 애정은 기본이니까. S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로만 꾸미다 Decorating with only the most precious and the most beautiful accessories

풍성한 치마폭 위로 걸음걸음마다 우아하게 찰랑거리는 노리개는 한국 고유의 섬세한 미의식을 상징한다.

옛 여인들은 노리개에 자연으로부터 온 아름다움을 모아 불로장생不老長生이나

백사여의百事如意와 같은 시대적 염원을 기원했다.

에디터 민소연 도움 주신 곳 국립중앙박물관, 조민지 작가

노리개는 옛 여인네의 대표적인 장신구였다. 저고리 고름이나 치마허리에 달아 장식하여 한복 고유의 옷맵시를 살렸다. 노리개의 기원은 삼국시대의 요패腰佩에서 찾기도 하고, <고려도경高麗圖經>에는 고려시대 귀부인들이 허리띠에 금탁金鐲, 금향낭錦香囊을 찻다는 기록이 전해지기도 한다. 노리개 제작은 보석 세공과 매듭 기법이 필수로 들어가 한국 수공예의 아름다움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대삼작 노리개는 3개의 큰 노리개를 하나로 묶은 것으로, 주로 예복에 차던 패물이라 가장 화려하고 크다. 대삼작 노리개는 나비 한 쌍과 산호 가지, 밀화 덩이 노리개 세 줄이 한 벌을 이루어 귀한 보석과 다양한 색조로 호사스러운 아름다움을 구현한다. 나비는 옥을 나비 모양으로 깎아 만든 판 위에 은판을 덧대고 진주와 산호 구슬로 장식했다. 또 산호 두 조각은 섬세한 문양이 새겨진 덮개 고리에 연결해 세 가닥의 산호 가지처럼 보이게 꾸몄다. 밀화 덩이는 본래의 모양을 살려 표면에 꽃과 잎 모양을 새겼다. 띠에는 길상문을 새겨 매듭에 연결하고, 각 장식 아래에 3가지 색의 술을 각각 늘어뜨렸다.

과거 우리 의복의 대표적인 장신구가 노리개였다면, 오늘날 서구화된 의생활에서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브로치를 들 수 있다. 브로치는 보통 핀으로 옷깃 등에 고정하는데 귀금속에서 패브릭, 플라스틱까지 그 재료가 무척 다양하다. 조민지 작가는 자연과 생명에 관한 모티브의 장신구를 지속적으로 작업해왔다. <식물 브로치> 시리즈는 은과 동을 재료로 식물의 잎과 꽃을 표현했다. S

Norigae was one of the most popular women's accessories in the old times. It was worn on the ties of their Jeogori (top) or around the waist to enhance the beauty of Hanbok. Norigae representing the beauty of Korean handicraft with jewelry craft and traditional knotting techniques. Daesamjak Norigae, mostly worn for special ceremonies, is the most glamorous and largest accessories as 3 Norigaes are tied into one.

Daesamjak Norigae created extravagant beauty with three straps of precious jewelry and various colors in the form of a pair of butterflies, corals, or amber. The butterflies were carved out of jade, and decorated with silver plating, pearls, and coral beads. Also, two pieces of coral were connected to the covering ring with elaborate patterns to make them look like three pieces of coral branches. The amber pieces were engraved with flower and leaf patterns. Tidon was connected to the knots with patterns of good luck, and tassels in three different colors were attached to each piece of ornament.

Norigae was the major accessory for traditional wardrobes, and was similar to the brooches of our Westernized styles today. Artist Minji Cho has worked with accessories that were inspired by nature and life. This piece expresses leaves and flowers with silver, brass, and red copper. Norigae ornamented women with natural materials and shapes, and her brooch conveys natural beauty in a simple and straightforward manner.



<대삼작 노리개>
전체 길이 23.5cm, 조선시대



<식물 브로치> 시리즈
조민지, 은, 동, 세라믹 컬러, 아크릴, UV 레진, 60x70x25mm



마작은 상아나 골재에 대쪽을 붙인 136개의 패를 가지고 여러 모양으로 짝짓기를 하여 승패를 겨룬다. 패를 보관하는 상자는 목재로 장을 짜거나 가죽 등으로 만든 가방을 사용했다.

오래되어도, 오래될수록 아름다운 것들

북 칼럼니스트 박사

독서는 철저히 홀로 하는 활동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었다. 하지만 책을 누군가에게 읽어주거나 누군가 읽어주는 것을 듣고, 공감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더 이상 혼자이거나 외롭지 않아도 될 것이다.

북 칼럼니스트 박사는 책을 권하고 읽어주는, '함께 하는 독서'의 메신저다.

에디터 민소연 사진 김민은

그녀의 이름은 박사, 본명이다. 직업은 북 칼럼니스트, 즉 책읽기는 취미이자 직업이다. 한 달에 한 번, 벌써 3년 넘게 소규모의 낭독 프로그램, '책 듣는 밤-박사의 독야청청'을 진행하고 있다. 책 읽기를 무척 좋아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래도 좀 더 알고 싶다. 박사에게 있어 '독서'는 어떤 의미일지.

“일단 책에 대한 글을 쓰는 것이 주된 업으로 생업이죠(웃음). 또 즐거움이기도 하고요. 하루에 여덟 시간 책을 읽는다면, 네 시간은 읽어야 하는 책을 읽고 나머지 네 시간은 읽고 싶은 책을 읽어요. 또 재미있어 보이는 무언가를 발견하면 우선 그것에 대한 책을 읽지요. 먼저 정보를 수집하는 거죠. 책은 가장 즐거운 취미이면서 또 다른 다양한 취미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더욱 확장시키는 기반이기도 해요.”

폭넓은 독서 덕분일까? 지치지 않는 호기심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박사는 다양한 취미 활동을 해왔다. 스윙댄스에 심취해 해외 파티에 원정도 다니고, 전각을 배워 지인들에게 멋진 도장을 새겨주기도 한다. 정기적으로 친구들과 모여 그림을 그리고, 틈틈히 마작 모임을 열기도 한다. 한 가지라도 제대로 된 취미를 갖기 원하는 평범한 사람에겐 무척 부러운 인생이 아닌가. 박사가 내놓은 애장품 역시 그 다양한 취미의 연장에 있었다.

“보드게임에 심취한 때가 있었어요. 각종 보드게임을 섭렵했는데 오래 하면 좀 질리더라고요. 그때 마작을 접했어요. 하면 할수록 새롭더군요. 그 안을 들여다보면 또 하나의 세계가 있어요. 알수록 배울수록

심오해서 매력적이죠. 마치 이 세상처럼요.”

고심 끝에 내놓은 애장품은 골동품에 가까운 마작 세트였다. 세월의 흔적이 여실한, 세심한 자개 장식이 멋스러운 케이스 안에는 진짜 골재로 만든 136개의 패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다. 친구가 이베이에서 직접 주문한 것인데 박사가 수집한 '예쁜 것들' 중에서도 베스트에 속한다. 아름다운 것을 모으는 것 역시 그녀의 중요한 취미 중 하나다. '미니멀리즘이 트렌드로 버리는 미덕'이 강조되는 지금이지만, 박사는 여전히 아름다운 물건들에 매료되어 있고 쉬이 버리지 못한다.

“시대를 초월하는 아름다움이란 것은 분명하게 존재해요. 그 아름다움은 먼 과거의 불상에서도, 1980년대에 생산된 어떤 전자제품에서도 발견할 수 있죠. 긴 세월이 지나도 계속해서 예쁘고 아름다울 수 있는 힘은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곁에 두어 바라보는 것도 즐겁고요. 하지만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집이 점점 좁아지고 있거든요(웃음).”

취미와 책, 아름다운 물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곤조곤 나누다 보니 문득 그녀가 읽어주는 책을 듣고 싶어졌다. 밑줄 긋고 싶은 문장들을 함께 나누는 그 순간 역시, 무척 예쁘고 귀할 터이다. S



청춘, 봄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찰나

봄은 모든 새로운 생명이 연약하면서도 강한 힘을 표현하는 계절이다.
청춘靑春이란 단어를 음미하면, 봄이 가진 역동성이 새삼스럽게 다가온다.
겨울과 여름 사이, 서운할 정도로 짧은 이 시간은 가장 젊은 인생의 찰나와도 같으니.

에디터 민소연 사진 김민은 도움 주신 곳 디뮤지엄



예술가의 작품은 그의 연령을 초월해 가치를 인정받는다. 물론 연륜이 깊어질수록 점점 성숙한 경지를 보여주는 예술가들이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연륜이나 경험이 작품의 완성도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오히려 젊은 예술가들만이 보여주는 반짝이는 기지나 세상을 바라보는 고유한 시선은, 어쩌면 그 빛나는 시절을 겪은 젊은이만의 특권이자 특혜일지도 모른다.

디뮤지엄은 이러한 특별함을 담은 프로젝트를 기획, 이번 봄까지 진행하고 있다. 자유와 반항, 순수와 열정을 담아낸 유스컬처(Youth Culture)의 다양한 감성과 면모를 선보이는 <YOUTH-청춘의 열병, 그 못다 한 이야기>가 그것이다. 젊은이 특유의 무한한 가능성과 크리에이티브한 에너지를 뽐어내고 있는 세계 각국 28명의 작품은 유쾌하고 자유분방한 분위기의 전시장과 어우러져 '젊음 그 자체'를 연설한다. 두 섹션으로 구성된 이 전시는 청춘의 내면에 공존하는 다면적인 감정들을 한 자리에서 공감하거나 기억할 수 있게 하는 200여 점의 사진, 영상 25점, 그래픽 및 설치 작업 15점을 포함한 총 240여 점의 작

품들을 디뮤지엄만의 감성으로 풀어냈다. 우선 전시장 1층에 들어서면 어둑한 조명 아래 갖가지 컬러의 네온 조명들과 비트감 있는 음악이 바깥과 전혀 다른 공기를 연출한다. 철모르는 청춘들이 모여드는 스트리트 한구석 어딘가에 도착한 기분이다. 이렇게 첫 번째 섹션에서는 청춘이 경험하는 일탈과 좌절, 고뇌가 여실히 드러나는 사진, 영상, 그래픽 작품들이 주를 이룬다.

10대들의 불안과 방향을 밀착하여 관찰해온 미국의 사진작가이자 영화감독인 래리 클락(Larry Clark)의 작품이 특히 인상적이다. 유스컬처를 날것 그대로의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한 그는 1960년대 오클라호마의 청춘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흑백 사진집 <털사(Tulsa)>와 뉴욕 10대들의 일탈을 담은 영화 <키즈(Kids)> 등의 작품으로 뜨거운 반향을 일으켰다.

또 아일랜드 출신 리처드 길리건(Richard Gilligan)이 촬영한 스케이트보드 신의 풍경도 흥미롭다. 리처드 길리건은 주목받지 못하는 비주류 문화의 풍경과 이를 즐기는 사람들을 정통 르포와 아트 다큐멘터

1 <Soar, Palermo>를 비롯한 파올로 라엘리의 사진 작품들.

2 고사 루브친스키는 스케이트보드와 함께하는 청년들의 사진을 찍는다. 작가 자신도 스케이트보드 파크를 운영하고 있다.



- 1 보일러룸(Boiler Room), 라이언 가르셀(Ryan Garshell), 영린(Yung Lean) 등이 제작한 영상이 반복 재생되고 있다.
- 2 라이언 맥긴리는 청춘이 겪는 갈등의 해방과 쾌락적 자유를 솔직하면서도 몽환적인 이미지로 담아내는 동시대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다.
- 3 대런 로마넬리와 매드사키가 컬래버레이션한 디뮤지엄 외벽 작업.
- 4 모스크바와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마샤 데미아노바는 여성의 시선(Female Gaze)을 주제로 섬세하면서도 강인한 여인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았다.

리 사이의 형식으로 담아낸다. 2012년 출판되어 2014년 재출간된 책 <DIY>에 실린 사진들은 세계 곳곳의 스케이트보드들이 손수 지어 만든 스케이트보드 파크의 풍경을 촬영한 것으로, 자신들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자 하는 스케이트보드들의 의지와 헌신 그리고 열정을 담고 있다.

그 밖에 낫선 러시아 청춘들의 모습을 담아낸 고샤 루브친스키(Gosha Rubchinskiy), 도발적이면서도 재치 있는 네온 텍스트 작업을 보여주는 이광기의 작품 등도 거칠거칠하고 지극히 현실적인 청춘들의 사고방식과 풍경을 보여주며 신선한 충격을 던진다.

2층 두 번째 섹션은 전혀 다른 결과 톤으로 분위기를 환기시킨다. 스스로 젊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지 못하는, 그래서 더욱 모호하고 순진무구한 매력을 가진 피사체들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우선 흡사 어린아이와도 같은 청춘의 자유로움을 프레임 가득 잡



아내는 라이언 맥긴리(Ryan McGinley)의 사진 작품들이 전시회장의 벽면을 가득 메우고 있다. 옐로로 상징되는 유쾌하고 따스한 표정, 시선들이 한없이 긍정적이다. 동시대 유스컬처의 대표주자로 꼽히는 라이언 맥긴리는 유년 시절 스케이트보드나 펑크 뮤직, 스트리트 아트 등 다양한 유스컬처의 영향 아래에서 자라 2003년 최연소로 뉴욕 휘트니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펼쳤다.

자신을 포함한 주변 인물들을 기록한 앤드류 리먼(Andrew Lyman)의 작품도 눈여겨볼 만하다. 간결한 구성과 따뜻한 색감이 마치 청춘 영화의 스틸 화면 같기도 한 그의 작품은 행복하고 떨리는 어린 연인의 순간을 섬세하게 잡아냈다. 스틸 이미지뿐 아니라 GIF 포맷을 이용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빛나는 찰나의 순간을 더욱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또 러시아 출신으로 모스크바와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진 작가 마샤 데미아노바(Masha Demianova)는 한없이 정제된 청춘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 그녀는 여성의 시선으로 섬세하면서도 강인한 여인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았다. 정물이나 풍경, 건축 등 다양한 대상을 다루는 그녀의 사진은 황량하면서도 몽환적인, 동시에 딱딱하기도 한 청춘의 단면을 포착하고 있다.

한편 전시관 외벽 역시 젊은 작가들의 기지로 꾸며졌으니 놓치지 말 것. 아르헨티나 출신의 그래피티 아티스트 펠리페 판토네(Felipe Pantone)와 미국의 디자이너이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대런 로마넬리(Darren Romanelli), 일본 출신의 아티스트 매드사키(Madsaki) 등이 참여한 건물 외벽은 자유로운 구상과 거침없는 표현으로 젊은 감성을 전달한다.

나른하고 변화 없는 일상이 다소 심심한 요즘이라면, 청춘의 도전 정신과 상상함이 가득한 이 전시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 <YOUTH-청춘의 열병, 그 못다 한 이야기>는 한남동 디뮤지엄에서 5월 28일까지 열린다. S

주고받는 사이, 더 가까워져요

비야흐로 선물의 계절입니다. 문득 생각나는 이가 있다면 마음을 꺼내어 보일 기회이기도 하지요. 받는 이에게는 기쁨을, 주는 이에게는 만족감을 선사하는 리빙 선물 아이템을 눈여겨보세요.

에디터 윤연숙 사진 김민은 스타일리스트 황남주(부로 드 끌로디아) 어시스턴트 장세희



골판지 소재로 제작한 아코디언 주름의 펜던트 조명 커버. 간단하게 펼쳐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제품으로 Andros by 데이글로우.



한지와 먹을 이용해 우연한 패턴을 형상화한 수목 도자기 술병과 잔 세트는 데카르트 by 해브빈서울.



하나의 선으로 이루어진 유니크한 디자인의 촛대. 와이어로 형태를 만든 코퍼 컬러의 촛대는 Hay by 이노메싸.

가정의 달 5월은 기념일이 많아 무척 바쁜 달입니다. 소중한 사람들에게 감사의 선물을 전해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요. 사랑하는 마음도 전달하고요. 오가는 선물 속에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도 보여주고, 애정을 돈독히 쌓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비싸고 화려하지만 활용도가 떨어지는 선물보다는, 일상에서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담 없는 선물과 정성스럽게 써 내려간 손편지 한 장이 더 깊은 감동을 전해줄 거예요. 선물을 고를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선물 받는 사람의 취향을 파악하는 일입니다. 좀처럼 감이 오지 않는다면 쓸모 있으면서 감각적인 스타일이 돋보이는 리빙 아이템은 어떨까요. 자신의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집 꾸밈으로 스스로를 표현하는 시대. 아름다운 디자인의 리빙 아이템이 두루두루 사랑받고 있습니다. 형태가 매력적인 촛대, 아날로그 감성이 담긴 펜, 동양의 멋과 서양의 편리함을 두루 갖춘 커틀러리 세트와 전통과 현대의 미가 조화롭게 담긴 술병과 잔 세트 등은 더할 나위 없이 센스 있는 선물이 되어줄 것 같네요. 마음도 일상도 풍요로워질 테죠. S



대범하고 과감한 붓 터치와 즉흥적인 유약의 튕김으로 자연스럽고 우연한 생동감을 만들어낸 액션 페인팅 빅 볼은 구민선 작가 by 소생공단.



블루와 브라운 투 톤의 컬러 배열이 세련되다. 침실 협탁이나 콘솔 위에서 존재감을 발휘할 모래시계 오브제는 자라훈.



스푼과 티스푼은 둥근 달을, 나이프는 반달의 형상을 담고 있다. 현대인의 식생활에 맞게 풀어낸 유기 커틀러리 세트 라퀸 by 서울번드.



발삼나무를 채운 천연 방향제 필로우. 아침 숲속을 산책하는 듯 신선한 자연의 향을 선사한다. 아이즐라.



아담한 볼 세 개가 트레이 위에 올려져 아이들이 사용하기에도 좋은 파스텔 그린 컬러 테이블 웨어는 Zuperzozial by 데이글로우.



모던하고 심플한 디자인에 행잉이 가능하도록 한 블랙 컬러 빗자루와 쓰레받기 세트는 MENU by 이노메싸.



나무가 주는 자연스럽고 아날로그한 감성을 담아 만든 볼펜. 손에 닿는 나무의 촉감이 편안함을 준다. 피아커 by KCDF.



소반 형태로 사용하면 컵 받침 뒹집으면 컵 홀더로 양면을 활용할 수 있다. 오브제로도 사용 가능한 미니 소반은 정은미 작가 by 해브빈서울.



계절감이 돋보이게 보태니컬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몬스테라 형태의 골드 컬러 티 코스터는 아르프.

소소한 행복을 찾아서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는 말처럼 행복은 작은 것에서 비롯됩니다. 일상을 행복으로 채워줄 소소한 선물 리스트.

에디터 윤연숙 사진 김민은 스타일리스트 황남주(뷰로 드 플로디아) 어시스턴트 장세희



볼륨감을 가진 레드 포인트의 클리어 커팅 스톤 이어링이 계절의 미감에 포인트가 된다. 정미알루스



피톤치드 가공한 면 100퍼센트로 만든 나비 손수건. 천연 염색 원단에 작은 나비와 전통 매듭을 손바느질로 달아 장식했다. 신경림 작가 by KCDF.



오배자와 황벽으로 물들인 명주를 책장 넘기듯 천을 접어가며 손바느질한 책주름 헤어핀은 조하나 작가 by KCDF.

빛나는 시간입니다. 신록에 新綠禮讚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계절, 몸과 마음이 들썩입니다. 계절의 싱그러움에 만남도 모임도 많아집니다. 곱게 치장하고 나서 별이 따뜻한 레스토랑 테라스에 앉아 지인들과 담소를 나누는 시간, 마음을 담은 선물을 받으면 더 즐거운 시간이 될 테죠. 그 선물이 여성의 아름다움을 빛내줄 액세서리 아이템이면 금상첨화일 것 같아요. 일단 예쁘니까 기본 만족도가 큰 데다 꼭 취향에 들어맞지 않는 선물이라도 여자에게 액세서리는 퀘스레 기분이 좋아지는 아이템이죠. 액세서리 선물을 고를 때 염두에 두면 좋을 두 가지는 잘생길 것, 그리고 흔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동서양의 매력이 공존하고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공예 작가의 액세서리는 섬세한 손길이 살아 있어 주는 이도 받는 이도 흐뭇해집니다. 나를 위한 선물로도 제격이에요. 그동안 열심히 달려온 자신을 위한 따뜻한 격려이자 위안이 되어주세요. 과하지 않으면서도 멋스러운 액세서리 선물로 작지만 큰 기쁨을 누리보세요. 소소한 선물이 거대한 행복을 가져올지도 모르잖아요. S



황동 파이프와 물소 뿔을 이용하여 기하학적인 형태를 만들고, 옷칠로 컬러 액센트를 준 브로치는 노경주 작가 작품.



실용적이면서도 예스러운 분위기가 감각적인 크로스백. 붓을 넣을 용도로 사용했던 필낭의 모양을 계승하여 만들었다. 임서윤 작가 작품.



수직기를 이용해 만든 한지 직물 부도니에 자연의 아름다움을 기하문의 모던한 감성으로 디자인했다. 한드랑 김수림 작가 작품.



진주가 떠 있는 듯한 효과를 주며 두 개의 손가락에 착용할 수 있는 진주 포인트 골드 스페이스 빅 서클 링은 장윤선 작가 작품.



한지공예 기법인 지승 제조법을 이용해 나무 구슬에 한지를 입힌 지승 고리 펜던트는 주혜원 작가 by KCDF.



전통 소재인 자개를 재해석하여 자개 특유의 불규칙한 패턴과 다양한 신소재를 조합해 개발한 브로치는 픽트 by KCDF.



티타늄 소재와 유니크한 커팅의 프렌트, 코너링에 포인트를 준 우아하고 세련된 브라운 색감의 선글라스는 젠틀몬스터.



재스민과 고양이 줄리앙이 봄바람처럼 살랑이는 듯한 판화 캔버스 에코백은 최경주 작가 by 소생공간.



사람, 자연, 우주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세상, 건강과 행복의 기원을 담은 한그리아 타기석 목걸이는 원혜정 작가 by KCDF.



<Sulwhasoo> 독자 선물

뮤지컬 <런, 다시 피는 꽃> 관람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독자엽서를 이용해 응모 가능하며,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99p 독자 선물 지면을 참조하세요.

**꽃처럼 피어나는 무희 서련의 아름다운 춤사위
<런, 다시 피는 꽃>**

궁 최고의 무희 '서련'과 '왕', 그녀를 사랑하는 무사 '도담'의 사랑 이야기가 한국 전통 춤사위로 태어났다. 정동극장이 직접 제작해 첫선을 보이는 <런, 다시 피는 꽃>은 전통에 창작과 현대적 요소를 더해 깊은 감동으로 다가온다.

<런, 다시 피는 꽃>은 삼국시대 '도미 부인' 설화와 제주 서사무가 '이공본풀이' 등 두 가지를 모티브로 창작했다. '도미 부인'은 백제의 왕이 미친한 도미의 아내에게 정념을 품고 간계를 부리나 도미 부인의 슬기로 위기를 극복하는 내용이고, '이공본풀이'는 종살이를 하며 주인에게 온갖 시련을 당하다 죽은 원강암 이를 남편 사라도령과 아들 할락공이가 서친 꽃밭의 되살아꽃으로 소생시킨다는 이야기다. <런, 다시 피는 꽃>은 극복과 소생이라는 한국 전통의 정신과 사상을 담아, 가상의 조선 왕실을 배경으로하여 화려한 춤사위로 피워낸다. 전통 음악을 바탕으로 한 보컬 곡을 삽입해 뮤지컬 요소를 담았으며, 특히 '현화가', '연담가'는 전통 설화 속 노랫말을 인용해 친근감을 높였다. 왕과 왕비가 나라의 태평성대와 왕실의 번영을 기원하며 직접 추던 '태평무', 한국 무용 특유의 박력과 힘을 느낄 수 있는 '검무', 제례 의식 절차 중 하나로 공연되던 '일무' 등이 전통 춤의 진수를 보여준다.

일시 4월 6일~10월 29일 장소 정동극장 문의 02-751-1500



**고고음악의 대기를 만나다
<필립 헤레베헤 & 상젤리제 오케스트라>**

2006년 바흐 'b단조 미사', 2013년 모차르트 '레퀴엠'으로 관객의 찬사를 받은 고고음악의 대가 필립 헤레베헤가 베토벤 교향곡 5번과 7번으로 내한한다. 이번 공연은 헤레베헤 70세 생일, 상젤리제 오케스트라 25주년, 베토벤 서거 190주년을 맞아 기획됐다.

고음악은 일반적으로 중세부터 바로크 시기까지의 음악을 가리키는 말로, 고음악 시대의 작곡가가 사용하던 악기와 그 당시 연주가의 연주 방식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 레온하르트, 호그우드, 아르농쿠르 등 유난히 많은 고음악의 거장이 떠나 공허한 빈자리에는 필립 헤레베헤, 존 엘리어트 가디너, 르네 야콥스 등이 남아 있다. 헤레베헤는 음악사적으로 타당하고 철저한 분석을 거친 음악을 추구한다. 그의 음악은 역동적이고, 정밀하며, 섬세한 묘사가 살아 있다. 이번 공연을 위해 헤레베헤는 베토벤 교향곡 5번과 7번을 선택했다. 마치 한국 관객들에게 헤레베헤만의 바흐, 모차르트, 베토벤을 차례 차례 보여주는 듯하다. 상젤리제 오케스트라는 올해 헤레베헤 70세 생일, 상젤리제 오케스트라 25주년, 베토벤 서거 190주년을 맞아 특별히 준비된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한다. 과거 두 번의 내한 공연을 통해 기층 깊은 울림을 선사한 헤레베헤의 지휘가 베토벤 교향곡에서는 어떻게 표현될지 주목된다. 일시 6월 17일 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문의 1577-5266

뮤지컬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



영화로 더 잘 알려진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가 옥주현 박은태 주연의 뮤지컬로 첫선을 보인다. 아이오아주로 이주해 온 이탈리아 출신 시골 주부 프란체스카와 <내셔널지오그래픽> 사진작가 키키케이드의 짧았던 나흘간의 만남을 주옥같은 노래로 엮었다. 일시 ~6월 18일까지 장소 충무아트센터 대극장 문의 1588-5212

뮤지컬 <드림걸즈>



국내 최초 내한 공연이자 전원 아프리카인 아메리칸 캐스트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현재 브로드웨이의 경향을 느낄 수 있는 세련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드림걸즈>의 이야기를 더욱 감동적으로 진정성 있게 완성시킨 무대를 만날 수 있다. 일시 ~6월 25일까지 장소 사뮈엘슨아트센터 문의 1588-5212

콘서트 <2017 Theatre 이문세>



<Theatre 이문세>는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오는 6월 전주, 천안, 진주, 청주 등 전국 투어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이문세의 음악과 따뜻한 감성에 아름다운 연주와 다채로운 춤, 감각적인 영상까지 더해져 최고의 공연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일시 5월 19~22일(서울) 장소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문의 02-3272-3133

책 <그림의 결>



베스트셀러 <그림의 힘>을 펴낸 김선현 교수의 첫 그림 에세이. 연애, 결혼, 육아 등 하나의 산을 넘으면 또 하나의 산을 넘어야 하는 여성들의 고달픈 하루를 위로하는 아름다운 명화가 펼쳐진다. 슬한 고민들에 머리가 아프다면, 당신을 위로할 그림의 결에서 잠시 쉬어 가기를 권한다. 지은이 김선현 출판사 예담

전시 <화화-반려·교감>전



반려동물, 반려식물을 주제로 한 전시. 전통 회화에서 오랫동안 다루어왔던 화조화花鳥畫, 영모화翎毛畫를 현대적 시각으로 표현했다. 순수한 동물, 혹은 식물을 통해서 어떤 치유와 교감을 얻고, 이러한 시각들이 작품 속에 어떻게 표현되는지 보여준다. 일시 5월 16일~7월 9일 장소 세종미술관 1~2관 문의 02-399-1000

전시 <자크 앙리 라티그-라 벨 프랑스>전



프랑스가 사랑한 사진가 자크 앙리 라티그의 국내 첫 회고전 '라 벨 프랑스(La Belle France)'는 불어로 '아름다운 프랑스'를 뜻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20세기 프랑스의 아름다운 풍경, 매력적인 여인들의 여유로움이 담긴 작품이 관람객들을 기다린다. 일시 ~8월 15일까지 장소 KT&G 상상마당 갤러리 문의 02-2014-2017

Sulwhasoo 아름다움을 완성하는 설화수 제품들

클렌징 라인

궁중비누
홍삼 성분을 원료로 정성스레 숙성시켜 피부 영양을 유지해 주는 고급 클렌징 비누
100g x 2 | 42,000원대

순행클렌징오일
산뜻한 사용감의 오일 이 얼굴에 부드럽게 롤링되는 저자극 클렌징 오일
200ml | 40,000원대

순행클렌징폼
피부 노폐물을 깔끔히 없애고 피부의 촉촉함을 유지해주는 저자극 클렌징 폼
200ml | 35,000원대

에센셜 라인

윤조에센스
자음단™이 건강한 피부 윤기를 선사 하는 첫 단계 에센스
60ml | 90,000원대

윤조마스크
자음단™을 미세한 코튼 시트에 담아 매끄러운 피부에 선사하는 집중 밸런싱 케어 마스크
5매 | 60,000원대

자음수
깊은 흡수력으로 피부에 촉촉하게 미루어주는 소프트 로션
125ml | 57,000원대

자유유액
매끄럽게 펴 발리고 맑은 흡수되어 피부를 부드럽게 만들어 주는 소프트 로션
125ml | 63,000원대

윤결에센스
피부를 촉촉히 가꾸어 매끈하고 단정한 피부를 만들어주는 피부 결 정리 에센스
50ml | 125,000원대

섬리안크림
눈가 피부에 얇게 밀착되어 촉촉하게 미루어주는 주름 개선 아이크림
25ml | 115,000원대

탄력크림
지산체™가 피부를 지지하는 힘을 높여 탄탄한 피부로 가꿔주는 탄력강화크림
75ml | 105,000원대

스페셜 라인

미안피니셔
앞서 바른 성분의 효능은 울리고 피부를 감싸 윤기 보호막을 형성하는 스킨케어 피니셔
80ml | 90,000원대

소노보크림
(TFF 40 / SPF 30 / PA++)
빛과 적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안티에이징 데이크림
50ml | 150,000원대

에소침크림&패치
인기 팔자 부위를 탄력 있게 케어해주는 크림&패치
25ml(크림)+10개(패치) | 200,000원대

탄력넥크림
지산체™와 5가지 한방 오일로 연약한 목 피부를 탄탄하고 매끄럽게 가꿔주는 안티에이징 데이크림
60ml | 80,000원대

자정 라인

자정클렌징폼
피부 자극 없이 노폐물을 깔끔히 제거해주어 깨끗하고 환한 안색을 선사하는 클렌징 폼
150ml | 40,000원대

자정스크럽젤
백상 피우다가 포함된 젤 포몰러가 알고 매끈한 피부로 가꿔주는 브라이트닝 스크럽 젤
100ml | 55,000원대

자정수
지친 피부를 정돈해 주고 미백 효능을 끌어 올려 주는 젤 타입 브라이트닝 스킨
125ml | 65,000원대

자정유액
피부 위로 촉촉함이 부드럽게 퍼져 유연하고 맑은 피부 상태로 가꾸어 주는 브라이트닝 스킨
125ml | 70,000원대

자정미백에센스
백상 미백 성분이 맑고 투명한 어린 피부 빛을 끌어올려주는 브라이트닝 에센스
50ml | 210,000원대

자정미백스팟트리트먼트
기미·잡티 생성을 억제하고 주변 유발 환경까지 케어하는 국소 부위용 스팟 트리트먼트
25ml | 130,000원대

자정미백아이에센스
클린 자막 어블리케이터와 시원한 젤 텍스처가 눈가 피부를 맑게 가꾸어주는 브라이트닝 아이에센스
15ml | 75,000원대

자정미백크림
브라이트닝 활성 성분이 촉촉하게 빛나고 투명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브라이트닝 크림
50ml | 135,000원대

자정미백마스크
고밀착 시트가 즉각적으로 맑은 안색과 탄력감을 선사해주는 브라이트닝 마스크
5매 | 65,000원대

상백크림
(SPF 50+ / PA++++)
피부를 보호해 잡티 없이 깨끗한 피부로 가꾸어주는 안티루틴스 마백 스킨크림
40ml | 75,000원대

어민에센스
피부 밀도를 조절하게 가꾸어주는 초기 안티에이징 에센스
50ml | 130,000원대

어민마스크
젤레 열매 발효 성분이 피부를 단단히 여머주는 안티에이징 마스크
5매 | 40,000원대

자여진에센스
주름은 밀어내고 탄력은 끌어올려주는 인삼 캡슐 타입 에센스
35ml | 150,000원대

자음생진부유
인삼 중추유가 빠르게 흡수되어 극심한 피부 건조를 해소하는 고농축 에센스 오일
20ml | 120,000원대

자음생이이크림
인삼 기능성 성분이 또렷하고 힘있는 눈매로 가꾸어주는 아이크림
25ml | 180,000원대

자음생크림 오리지널
인삼 결정체가 피부 활력을 선사하는 인삼 안티에이징 크림
60ml | 250,000원대

자음생크림 라이트
인삼 결정체가 피부 활력을 선사하는 인삼 안티에이징 크림 (산뜻한 질감)
60ml | 250,000원대

수윤미스트
즉각적인 청량함과 수분 공급으로 피부에 평온함을 주는 수분 진정 미스트
100ml | 42,000원대

수윤크림
시원한 자적나무 수액이 피부를 편안하게 가꾸어주는 수분 크림
50ml | 90,000원대

수윤선플루이드
(SPF 50+ / PA++++)
수분 공급 지위선으로 부터 피부를 케어하는 수분선플루이드
50ml | 55,000원대

동백윤오일
천연 유래 동백 오일이 끈적임 없이 자연스러운 윤기를 선사하는 헤어 오일
100ml | 35,000원대

에센셜밤
홍취의 고농축 보습 성분이 피부를 촉촉하고 윤기 나게 가꾸어주는 멀티 보습 밤
15g | 40,000원대

연성바디크림
노화로 인해 트러진 피부를 탄력 있게 가꾸어주는 고보습 안티에이징 바디크림
200ml | 80,000원대

진설 라인

진설수
적습 성분이 즉각 흡수 되어 깊이 있는 촉촉함을 선사하는 프리미엄 안티에이징 스킨
125ml | 110,000원대

진설유액
적습 성분이 피부 결을 매끈하고 유연하게 가꾸는 프리미엄 안티에이징 에달전
125ml | 120,000원대

진설에센스
적습의 생명력과 항산화 에너지가 피부 방어력을 높이는 프리미엄 토탈 안티에이징 에센스
50ml | 330,000원대

진설아이에센스
적습 성분과 글루타미네이커 마사지가 빛나는 눈가 피부를 선사하는 프리미엄 토탈 안티에이징 아이에센스
20ml | 270,000원대

진설아이크림
눈가 피부의 주름과 처짐을 케어하는 프리미엄 토탈 안티에이징 아이크림
25ml | 270,000원대

진설크림
적습과 수분의 생명력으로 진하고 부드러운 감촉의 거품이 개운함과 촉촉함을 동시에 선사하는 프리미엄 클렌징폼
60ml | 450,000원대

진설클렌징폼
진하고 부드러운 감촉의 거품이 개운함과 촉촉함을 동시에 선사하는 프리미엄 클렌징폼
120ml | 65,000원대

다함설 라인

다함설크림
단심과 홍삼이 젊음의 에너지를 선사하는 피부 강화 리스리 토탈 안티에이징 크림
60ml | 650,000원대

설안팩
목의 기운으로 맑고 매끄러운 피부로 가꾸어주는 수면팩
80ml | 85,000원대

음션 라인

여운팩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여 다음 날 아침 피부 윤기가 되살아나게 도와주는 수면 팩
120ml | 52,000원대

옥운팩
목은 각질과 노폐물을 제거하여 매끈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필 오프 타입 팩
150ml | 42,000원대

청운수딩팩
즉각적인 청량감을 제공하여 피부 진정 효과를 주는 청매실 성분 함유 수딩 팩
80ml | 42,000원대

MEN

메올마사지크림
지친 피부에 영양과 활력을 제공하여 피부 스트레스를 진정시켜 주는 마사지 크림
180ml | 75,000원대

리프래싱클렌징폼
천연 피부더 성분과 조밀한 거품의 데일리 스크럽 겸용 클렌징 폼
150ml | 30,000원대

본윤에센스
주름, 탄력, 칙칙함을 케어해주는 워터 젤 타입의 안티에이징 에센스
140ml | 73,000원대

본윤유액
남성 피부 장벽 강화 및 외부 자극에 의한 피부 손상을 케어해주는 고보습 안티에이징 로션
90ml | 52,000원대

본윤크림
피부 노화를 완화하는 인삼씨 오일 성분의 고보습 안티에이징 크림
40ml | 90,000원대

릴렉싱UV프로텍터
(SPF 50+ / PA++++)
자외선과 외부 자극으로부터 편안한 피부 보호막을 만드는 남성 UV 프로텍터
50ml | 40,000원대

쿠션

퍼펙팅쿠션
(SPF 50+ / PA+++)
탁월한 커버력으로 잡티 없이 윤기를 선사하는 쿠션 파운데이션
15g x 2 | 60,000원대 (리필 25,000원대)

퍼펙팅쿠션 브라이트닝
(SPF 50+ / PA+++)
목련 추출물이 화사하게 해주는 브라이트닝 쿠션
15g x 2 | 65,000원대 (리필 30,000원대)

퍼펙팅쿠션 인텐스
(SPF 50+ / PA+++)
깊고 건강한 동안 빛을 위한 안티에이징 쿠션
15g x 2 | 85,000원대 (리필 40,000원대)

메이크업밸런서
(SPF 25 / PA++)
유·수분, 피부 힘·톤·결을 밸런싱하는 메이크업밸런서
35ml | 60,000원대

CC
(SPF 34 / PA++)
매끈한 도자기 피부결로 표현해주는 유액 타입 CC
35ml | 60,000원대

채담 메이크업
채담 스무딩파운데이션
(SPF 25 / PA++)
감사만듯 부드럽게 도모되는 파운데이션
30ml | 55,000원대

채담 스무딩팩트
(SPF 25 / PA++)
자연스러운 화사함을 하루 종일 지켜주는 팩트
10g | 60,000원대 (리필 45,000원대)

자정 메이크업
자정 에센스비비
(SPF 50+ / PA+++)
하루 종일 밝고 화사한 피부를 유지시켜주는 화이트닝 BB
30ml | 60,000원대

자정 미백UV팩트
(SPF 50+ / PA+++)
자외선과 유로부터 피부를 지키는 미백 팩트
9g | 60,000원대 (리필 45,000원대)

에서 메이크업
에서 파운데이션
(리퀴드) (SPF 15 / PA+)
3중 보호막으로 촉촉하게 커버하는 파운데이션
30ml | 55,000원대

에서 스킨케어
(SPF 25 / PA++)
크리미한 텍스처의 케이크 타입 파운데이션
14g | 58,000원대 (리필 42,000원대)

에서 트윈케이크
(SPF 30 / PA+++)
담담함 없이 커버해주는 트윈케이크
11g | 58,000원대 (리필 42,000원대)

에서 파우더
성세한 파우더가 화사한 톤으로 가꾸어주는 파우더
20g | 55,000원대 (리필 40,000원대)

진설 메이크업
진설 유포에이크림
3가지 빛깔의 보석 파우더가 피부에 윤기를 표현하는 메이크업 크림
30ml | 90,000원대

진설 유포에이션
(SPF 25 / PA++)
피부 표면에 촉촉하게 밀착되는 프리미엄 팩트 파운데이션
30ml | 90,000원대

진설 유포팩트
윤기를 표현해주는 프리미엄 팩트
13.5g | 110,000원대 (리필 80,000원대)

볼류메이팅
볼류메이팅파운데이션
(SPF 35 / PA++)
스킨케어를 바른 듯 피부를 탄력 있게 케어하는 크림 파운데이션
30g | 80,000원대

컨실러
에센셜 컨실러 스틱
부드럽게 도모되어 얼굴에 넓게 퍼져서 결점까지 한번에 커버해주는 컨실러 스틱
5g | 40,000원대

레이디스 블러셔
자연스럽게 화사한 핑크색과 윤기 있는 피부 빛을 더해주는 멀티 컬러 블러셔
10g | 60,000원대

레이디스 블러셔
자연스럽게 화사한 핑크색과 윤기 있는 피부 빛을 더해주는 멀티 컬러 블러셔
10g | 60,000원대

립
에센셜 립세럼 스틱
고보습 보호막으로 생기 있고 탄력 넘치는 입술로 가꾸어주는 데일리 립 케어
3g | 40,000원대

설화수를 사랑하는 독자를 위한 특별한 선물



설화수 윤조에센스 20주년 리미티드 에디션(3명)
풍부한 촉촉함과 윤기를 더해 피부를 윤택하게 보필해주어 세안 후 처음에 사용하는 부스팅 에센스입니다. 자음단™이 피부의 다섯 가지 균형을 바로잡아 속부터 촉촉한 윤기를 만들어줍니다.



무용극 <연, 다시 피는 꽃>(3명)
가상의 조선 왕실을 배경으로 왕실 최고의 무희 서연의 아름다운 춤사위가 펼쳐지는 무용극 <연, 다시 피는 꽃>의 관람권을 3명(1인 2매)께 드립니다.(티켓 수령은 추후 당첨자 개별 공지)

(주)아모레퍼시픽 설화수 VIP 고객을 위한 고품격 매거진 <Sulwhasoo>는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여성 생활 문화지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언제나 독자와 가까운 자리에 서 있고 독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독자엽서에 내용을 적어 <Sulwhasoo> 편집부 앞으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내용은 알찬 기사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칭찬보다 신선한 아이디어 제안과 따끔한 질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독자엽서를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응모 방법 <Sulwhasoo> 내의 독자엽서로 우편을 이용해 응모
- 응모 마감 2017년 6월 15일까지
- 중정 선물 설화수 윤조에센스 20주년 리미티드 에디션, <연, 다시 피는 꽃> 관람권
- 당첨자 발표 5/6월호 독자선물 당첨자란 참조

2017년 3/4월호 독자선물 당첨자 명단

설화수 자정미백에센스(3명)
강여진 서울 영등포구 신봉로
김윤순 울산시 동구 산록길
최세문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뮤지컬 <오! 캐롤> 관람권(3명)
구미희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송경숙 서울 관악구 성현로
지역자 인천시 중구 신도사북로

2017년 3/4월호 당첨자 선물은 5월 31일까지 보내드립니다.



피부의 균형을 바로잡아 찬란하게 빛나는 궁극의 윤기를 얻다

설화수 윤조에센스

속부터 우러나오는 건강한 피부 윤기, 차우침 없는 균형에서 시작됩니다. 생기, 탄력, 투명, 자생력, 영양의 균형을 바로잡아주는 설화수 윤조에센스

삼천 가지 귀한 원료에서 찾은 다섯 가지 성분의 자음단™이 피부 본연의 윤기를 찾아주고 피부의 부족한 기운을 채워 가장 이상적인 피부균형을 완성합니다. 매일 아침, 찬란하게 빛나는 윤기피부를 만나보세요

〈설화수 전국 매장〉

FLAGSHIP STORE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 02-541-9270

SPA

설화수 스파 롯데호텔서울 3~4층 02-318-6121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 지하 1층 02-541-9272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 4층 02-541-9273

백화점

서울특별시

- 롯데백화점 본점 02-772-3148
- 롯데백화점 잠실점 02-2143-7192
- 롯데백화점 강남점 02-531-2165
-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02-2164-5029
- 롯데백화점 청량리점 02-3707-1129
- 롯데백화점 관악점 02-3289-8140
- 롯데백화점 노원점 02-950-2152
- 롯데백화점 미아점 02-944-2046
- 롯데백화점 스타시티점 02-2219-3116
- 롯데백화점 월드컵점 02-3213-2056
- 롯데백화점 김포점 02-6116-3150
- 현대백화점 본점 02-3438-6072
-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02-3467-8614
- 현대백화점 신촌점 02-3145-2114
- 현대백화점 미아점 02-2117-1147
- 현대백화점 천호점 02-2225-7184
- 현대백화점 목동점 02-2163-1171
- 신세계백화점 본점 02-310-5081
-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02-3479-1265
-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 02-2639-4122
- 갤러리아백화점 압구정점 02-6905-3360
- 아이파크백화점 02-2012-4179
-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점 02-2211-0148
- AK플라자백화점 구로본점 02-852-6136

인천광역시, 경기도

- 롯데백화점 인천점 032-450-2140
- 롯데백화점 부평점 032-452-2175
- 롯데백화점 안산점 031-412-7748
- 롯데백화점 평촌점 031-8096-9159
- 롯데백화점 수원점 031-8066-0157
- 롯데백화점 분당점 031-738-2172
- 롯데백화점 일산점 031-909-3224
- 롯데백화점 안양점 031-463-2147
- 롯데백화점 구리점 031-550-7912
- 롯데백화점 중동점 032-320-7135
- 현대백화점 중동점 032-623-2136
- 현대백화점 판교점 031-5170-2110
- 현대백화점 킨텍스점 031-822-3140
-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032-430-1479
- 신세계백화점 경기점 031-695-1282
-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 031-8082-0343
- 신세계백화점 하남점 031-9072-1801
- 갤러리아백화점 수원점 031-237-9890
- AK플라자백화점 분당점 031-709-9694
- AK플라자백화점 수원점 031-240-1152
- AK플라자백화점 평택점 031-646-6130

부산광역시

- 롯데백화점 부산점 051-805-0484
- 롯데백화점 동래점 051-552-4118
-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 051-730-3183
- 롯데백화점 광복점 051-678-3166
- 현대백화점 부산점 051-667-0140
-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051-745-2296

울산광역시

- 롯데백화점 울산점 052-258-5784
- 현대백화점 울산점 052-228-0116
- 현대백화점 울산동구점 052-250-4173

대구광역시

- (주)대구백화점 본점 053-428-2961
- (주)대구백화점 프리아점 053-426-6036
- 롯데백화점 대구점 053-660-3054
- 롯데백화점 상인점 053-258-3106
- 현대백화점 대구점 053-245-2125
- 동아백화점 수성점 053-781-9295
- 신세계백화점 대구점 053-661-1861

광주광역시, 전라도

- 롯데백화점 광주점 062-221-1139
- 신세계백화점 광주점 062-368-6764
- 롯데백화점 전주점 063-289-3176
- 뉴코아아울렛 순천점 061-720-5151

경상도

- 롯데백화점 창원점 055-279-3116
- 롯데백화점 마산점 055-240-5193
- 롯데백화점 포항점 054-230-1190
- 신세계백화점 마산점 055-240-1263
- 신세계백화점 김해점 055-272-1108
- 갤러리아백화점 진주점 055-791-1165
- 동아백화점 구미점 054-455-63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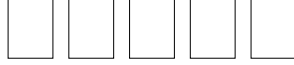
통합엽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번호 _____



우편요금
수취인 부담

발송 유효 기간
2010. 9.1~2017. 9.1

서울 마포우체국
승인 제210호

받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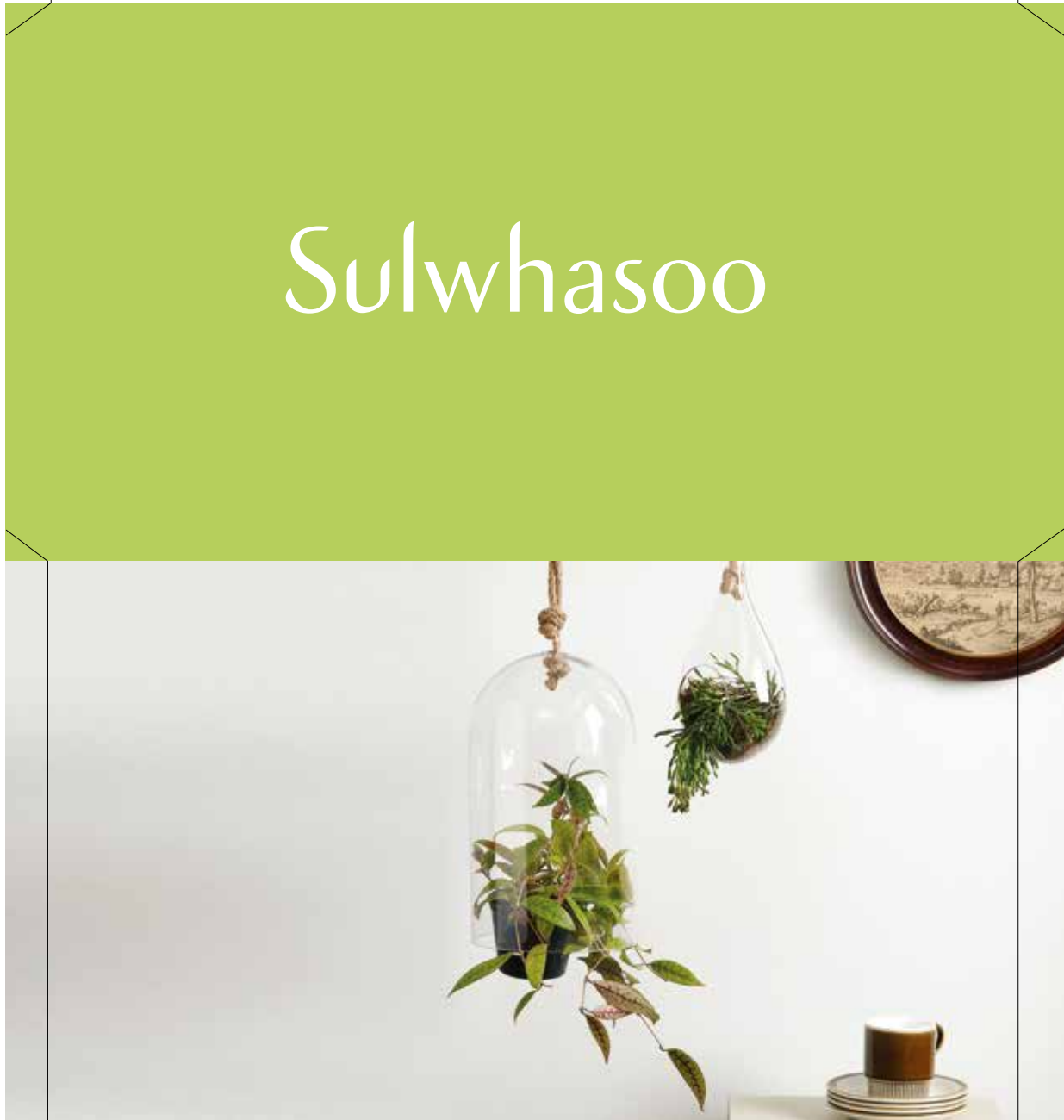
서울시 마포우체국 사서함 117호

〈Sulwhasoo〉 담당자 앞

전화: 080-023-5454(수신자 요금 부담)



Sulwhasoo



아모레퍼시픽 설화수의 <Sulwhasoo>는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보내주신 고객님의 의견은 <Sulwhasoo>를 만드는 데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설문에 응해주신 고객님께는 추첨을 통해 정성껏 마련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1. 펼치다

- 설화지혜(8p)
- 피부 섬기기(12p)
- 新 장인을 만나다(16p)
- 공간미감(22p)
- 건너다(28p)

매우 만족							매우 불만족
7	6	5	4	3	2	1	
7	6	5	4	3	2	1	
7	6	5	4	3	2	1	
7	6	5	4	3	2	1	
7	6	5	4	3	2	1	

2. 누리다

- 설화인(36p)
- 어우러지다(44p)
- 설화풍경(50p)
- 설화보감(54p)
- 아름다운 기행(60p)
- 설화수를 말하다(66p)
- 설화공간(72p)

매우 만족							매우 불만족
7	6	5	4	3	2	1	
7	6	5	4	3	2	1	
7	6	5	4	3	2	1	
7	6	5	4	3	2	1	
7	6	5	4	3	2	1	
7	6	5	4	3	2	1	

3. 익히다

- 배움의 기쁨(78p)
- 한국의 멋(82p)
- 설화에장(84p)
- 읽다(86p)
- 집 안 단장(90p)
- 몸 단장(92p)

매우 만족							매우 불만족
7	6	5	4	3	2	1	
7	6	5	4	3	2	1	
7	6	5	4	3	2	1	
7	6	5	4	3	2	1	
7	6	5	4	3	2	1	
7	6	5	4	3	2	1	

+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1. 다음 호 <Sulwhasoo>에 더 적극적으로 실었으면 하는 기사는? (해당 칸에 모두 체크해주세요)

- 상품 정보 제품 미용법 요리, 인테리어 및 패션
 공연, 전시 및 문화 정보 풍경 및 여행지 인물 인터뷰
 기타 _____

2. 다음 중 받고 싶은 선물 1개를 선택해주세요. (98p 참조)

- 설화수 윤조에센스 20주년 리미티드 에디션 무용극 <련, 다시 피는 꽃> 관람권
 이름 _____ 성별 남 여 나이 _____
 주소 _____ 전화번호 _____

(선물에 당첨되면 해당란에 적어주시는 주소 및 전화번호로 개별 연락 드립니다.)

+ <Sulwhasoo>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웠던 부분과 불만스러웠던 부분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강원도, 충청도

- 엠백화점 춘천점 033-257-4129
- AK플러자백화점 원주점 033-811-5502
- 갤러리아백화점 센터시티점 041-552-3358
- 신세계백화점 충청점 041-640-5017
- 롯데백화점 청주점 043-219-9219
- 현대백화점 충청점 043-909-4124
- 롯데백화점 대전점 042-528-3320
-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점 042-488-5650
- 세이백화점 042-256-0198

면세점

- 롯데 부산 면세점 051-810-3879
- 롯데 소공 면세점 02-759-6662
- 롯데 인천 면세점 032-743-2422
- 롯데 인천 탑송동 032-743-7947
- 롯데 제주 면세점 064-783-3138
- 롯데 코엑스 면세점 02-3484-9655
- 롯데 김포 면세점 02-2669-6730
- 롯데 김해공항 면세점 051-979-1932
- 신라 면세점 02-2230-3597
- 신라 인천 면세점 032-743-4488
- 신라 아이파크 면세점 02-490-3351
- 신라 제주 면세점 064-710-7324
- 신세계 명동 면세점 02-6370-4109
- 신세계 면세점 051-749-1448
- 한화 제주공항 면세점 064-740-0144
- 한화 면세점 02-2136-2779
- 동화 면세점 02-399-3123
- 삼익 면세점 032-743-0543
- 에스엠 인천 면세점 032-743-1570
- 에스엠 면세점 02-2120-6210
- 시티플러스 면세점 032-743-5718
- 제주관광공사 시내 면세점 064-740-6904
- 두산타워 면세점 02-3399-9236

